

柔道

Vol.126

judo.sports.or.kr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 대한유도회 회보 2020 가을호



특별 인터뷰

강형원 대한유도회 심의위원장

커버스토리

유도를 즐기는 연예인
배우 이훈

특별 기획

코로나시대, 유도 길을 묻다
스포츠 인권을 말하다

현장을 가다

양구 유도스포츠클럽

유도 지방화 시대(10)

대전광역시유도회

유도 JOB

한강공원 청원경찰로 변신,
전 용인시청 유도선수 조성욱



124

CONTENTS

2020 AUTUMN
Korea Judo Association
Vol.126



표지설명
대한유도회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배우 이훈.
그는 유도를 통해 부드러움과
예의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 통권 126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진도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1층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02 특별 인터뷰

강형원 대한유도회 심의위원장

06 국내대회

2020 경찰청장기대회

10 기획 | 코로나시대, 유도 길을 묻다

- 10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국가대표팀
- 14 코로나 19에 애타는 유도부 학생선수들
- 16 코로나 19에 흔들렸던 유도관
- 18 코로나19 시대 맞은 한국 스포츠 대처 방안은

20 기획 | 스포츠 인권을 말하다

- 20 '클린 유도'로 가는 길
- 22 스포츠 윤리센터의 모든 것
- 25 강래혁 변호사가 말하는 스포츠인권
- 26 스포츠 인권, 이것만은 알아두자

28 유도 지방화 시대(10)

- 28 인터뷰 - 대전광역시유도회 오경환 회장
- 30 학교 탐방 - 대전 대성중학교 유도부
- 32 유도관 탐방 - 대전 한성 유도관

34 인터뷰

유도를 즐기는 연예인, 배우 이훈

38 현장을 가다

국내 최초! 양구 유도스포츠클럽

42 꿈나무를 찾아서

해비급 유망주 용인대 박샛별

44 마니아열전

'유도와 함께라면 언제나 청춘' 80세 조대영

46 유도 JOB

한강공원 청원경찰로 변신,
전 용인시청 유도선수 조성욱

48 유도 뉴스 및 유도인 동정

50 2020년도 제3차 정기승단자 명단

입 신(入神)의 경지는 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야 도달할 수 있다.

바둑 9단(九段)은 기예와 경륜이 최상에 올라야 가능하고, 정치 9단은 과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같은 3김에게만 붙여준 칭호였다. 유도에서도 평생 쌓아온 업적은 물론 입신의 경지에 걸맞은 품격을 지녀야 9단 승단이 가능하다. 의암 강형원 선생은 한국 유도계에서 '살아있는 스승의 전형'으로 불릴 만 하다. 그는 유도인으로서 평생 지도자의 삶을 살아오며 셀 수 없는 제자를 길러 한국 유도의 저변을 넓히는데 앞장섰다. 그것만으로도 입신의 경지인 9단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계간 <柔道>가 이번에 특별 인터뷰 대상으로 강형원 대한유도회 심의 위원장을 찾아간 이유다.

강 위원장과 인터뷰는 가을 정취가 한창 무르익던 10월 15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자리한 그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柔道>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한 강 위원장은 "먼 곳 까지 어떻게 왔느냐"면서 "지금은 고속도로가 바로 옆으로 나서 교통이 편리해 졌지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차가 다니지 않은 오지여서 청주를 가려면 음성에 나가 기차를 타거나 진천에 가서 버스를 타야 했다"고 말했다. 2009년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와 집을 짓고 정착한 강 위원장은 현재 부인(이미자 씨·70)과 단둘이 살고 있다.

코로나19는 유도회 심의위원장인 그의 일상을 확 바꿔놓았다. 2013년 심의위원장 취임 후 전국 각지를 종횡무진하던 그의 발은 주로 집에 머물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거의 둑여 있다. 심의위원장은 유도 승단과 연금 대상자 심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그는 "유도회가 주관하는 대회와 행사가 연간 24 회가 있다. 거기에 고단자 가운데 누가 참석 하는지 심의위원장이 기록해서 사무국에 제출하면 심사에 반영한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모두 중단되었으니

저변 확대 제자 육성에 헌신했던 유도 인생

유도장이 좋고, 유도인 만나는 게 가장 좋다

강형원 대한유도회 심의위원장

주로 집에 머물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거의 둑여 있다. 심의위원장은 유도 승단과 연금 대상자 심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그는 "유도회가 주관하는 대회와 행사가 연간 24 회가 있다. 거기에 고단자 가운데 누가 참석 하는지 심의위원장이 기록해서 사무국에 제출하면 심사에 반영한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모두 중단되었으니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눈 팔지 않고 유도 한길을 걸어왔다. 심의위원장으로 맡기 전에는 1963년 청주 대성중 코치로 시작해 35년간 일선 지도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 스승의 표상으로 불렸다. 지도자 외에도 유도에 관한 직책은 대한유도회장 을 빼곤 거의 모두 거쳤을 만큼 한국 유도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했다. 대한유도회 심판

위원회와 부회장을 역임했고 한국유도원 이사장을 지냈는가 하면 청소년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도 맡아 국제무대에서 한국 유도의 저력을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또한 충청북도 유도회장으로 8년간 재임했던 강 위원장은 충청북도 유도의 저변을 넓히고 위상을 올리는데 기여함으로써 충북 유도계의 대부(代父)로도 추앙받고 있다.

강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유도에 관한 무한한 열정과 집념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실제 한번 계획한 일은 끝내고야 마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강 위원장이 한국 유도에 남긴 업적이라면 지도자로서 쌓아올린 공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기예와 무도를 전수받은 제자만도 60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그의 문하(門下)가 바다처

럼 넓고 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35년 지도자 이력 가운데 20년은 청주 청석고한 곳에서 한 우물만 파면서 보낸 세월이다. 그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올린 전공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청석고를 거친 국가대표가 17명이야. 그들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 수를 헤아려보니 금메달 33개, 은메달 24



대성중 재직시 유도마스게임을 지도하고 있는 강형원 위원장.



자택 거실벽을 장식하고 있는 체육훈장과 대통령 표창장

개, 동메달 22개 해서 도합 79개가 돼. 정말 뿌듯하지.”

그가 키워낸 제자 면면을 보자면 국민들에 게 익숙한 이름이다. 1981년 한국 유도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박종학 (청주대 교수)부터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금메달과 세계선수권대회 3연속 금메달을 따낸 전기영(용인대 교수), 2001 세계선수권 우승과 애틀랜타올림픽 은메달에 빛나는 조 인철(용인대 교수), 현 금호연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모두 강 위원장 손을 거쳐 크게 된 제자들이다.

그러고 보니 그의 자택 거실 벽을 장식한 표창장과 훈장이 눈에 들어온다. 모두 그가 지도자로 남긴 공적과 관련이 있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박경호 선수의 금메달을 지도한 공로로 전두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996년엔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체육훈장 백마장, 1999년에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역대 대통령 3명이 수여한 훈장과 표창장은 그가 유도 지도자로 남긴 공훈의 상징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일생 동안 한국 유도의 동량(棟梁)을 키워냈으니 그에게 분명 특별한지도 비결과 철학이 있음에 틀림없다. 강 위원장은 “특별한 게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다. “그래도 분명 있을 것 같다. 말씀해 달라”고 조르자 다시 입을 열었다.

“지도자라면 유도에 미쳐야 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유도밖에 몰라야 한다. 나는 지금도 유도장이 제일 좋고, 유도인을 만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 안목과 그 재목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론도 펼다. 그가 선수를 보는 눈은 유도계에 정평이 났다. 강 위원장은 “크게 될 선수는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선수를 말하느냐”고 묻자 첫째, 팔과 다리가 길어야 유도에 유리하고, 축구와 육상 같은 다른 운동을 시켜보면 순발력과 민첩성같은 감각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둘째로 성실하고 셋째는 노력하는 선수

인데 여기에 인성까지 더하면 유도로 성공할 재목이 된다는 것이다.

“박종학, 전기영 같은 선수는 고교 때 이미 남다른 선수였다”고 예를 든 강 위원장은 “그 제자들이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등 큰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때는 잠을 못이룰 만큼 기뻐했다”고 잊지 못할 순간을 돌아봤다.

유도에 마음 빠진 소년 강형원

잠시 그의 성장기로 돌아가보자. 강형원은 충북 읍성군 맹동면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맹동국민학교를 졸업한 강형원은 청주로 유학을 떠나 주성중에 들어갔다. 그의 운명을 바꾼 유도와 첫 만남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뤄졌다.

“청주에 상무관이 있고, 거기서 1학년 학생 전부가 영화 구경을 했다. 영화가 끝나고 나

서 경찰이 도복을 입고 나와서 유도를 하는데 참 멋있어 보였지. 남자 운동으로 참 괜찮다고 생각해서 상무관을 다시 찾아가서 유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 그가 기억하는 유도와의 첫 만남이다. 당시 상무관에서 경찰들이 반은 유도, 반은 검도를 수련했던 걸로 기억한다. 상무관을 찾은 중학생 강형원을 반갑게 맞이해준 이는 지금도 평생의 은사로 생각하는 김창성 선생님이다. 그 때부터 유도는 그의 세계를 지배했다.

“그 선생님께서 유도가 좋은 운동니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낙법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유도를 배워가며 재미를 붙였어. 그 때 오후 3시쯤 학교를 마치면 바로 도장으로 가서 수련하곤 했지.”

마침 강형원은 좋은 선배도 만났다. 1년 선배인 김병식이다. 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실력파였다. 그는 “김병식 선배와 어울려 지내다보니 유도가 적성에도 맞고 매력도 차츰 느끼게 됐다”고 돌아봤다.

청주고에 진학한 강형원은 고교 졸업후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에 진학하며 본격적

으로 유도인의 길로 들어섰다. “그 때 엘리트 선수로 나갈 큰 꿈이 있었느냐”고 묻자 “유도학교에 진학 할 땐 선수로 성공하기보다 졸업하고 경찰로 입직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런 강형원은 지도자의 길로 이끈 동기는 아주 단순했다. 그는 선수 시절 전국체전에 몇 번 출전했고, 입상은 생각도 못했던 아주 평범한 선수였다고 선수 강형원을 평가한다. 지도자의 길로 나선 동기도 그 때문이었다고 했다.

“내가 중고교 때 그저 좋아서 유도를 하다 보니 체계적인 지도를 받지 못했어. 선수 생활도 잘 못했으니까 제자는 훌륭하게 키워보자는 생각에서 지도자를 생각하게 됐지.”

충북 유도의 대父가 되다

강 위원장이 충북 유도의 대부로 불리는 데도 그만한 깊이가 있다. 우선 충북 도내에서 직접 창단한 유도팀만 7곳이나 된다. 1963년 청주상고와 대성중을 시작으로 대성초등학교(1964), 충북도청 남자팀(1975), 청석고(1977), 청주대(1981), 충북도청 여자팀(2007)을 차례로 창단했다. 직접 창단팀 코치를 지내거나 충북유도회장 재임시 창단을 지휘한 곳이다. 도청 남자팀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도 인구 저변을 확대한 공로는 실로 크다. 대성중 재직시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전교생에게 유도마스게임을 지도함으로써 학생 4,000명이 유도의 기초를 수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청석고 재직시에는 1979년부터 10년간 유도를 정규과목으로 편성, 유단자 2,500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데 유도 수업을 하고나선 학생들이 예의가 바르고 겸손해졌다. 정서가 안정되자 교내 폭력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2000년부터 충북 유도회장 도 8년간 맡은 바 있다. 그 시절이 충북 유도의 전성기였다. 2005년 직지컵 국제청소년유도대회를 창설했고(2001년까지 개최), 2007년엔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를 출범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충북에는 현재 유도회관이 두 곳이나 있다. 강 위원장은 1975년 충북유도회 전무로 재직시 남궁유도회관 건립을 주도했고, 2004년에는 회장으로서 도내 유도인들의 뜻을 모아 청주유도회관을 준공했다. 제85회 전국체전 유도종목을 개최한 청주유도회관은 국내 최대 유도전용도장으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초등 유도에 한국 유도의 미래 있다

지도자와 행정가로 일생을 살아온 강 위원장은 한국 유도의 미래를 위해 유도 저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초등학생에게 유도복을 처음 입히는 선생님, 초등학생을 도장으로 이끄는 유도관장님이 한국 유도의 기수라고 할 수 있다. 유도를 처음 시

작하게 하고 기초를 지도하는 분이다”면서 “그래야 초등학생 선수들이 많아져서 한국 유도가 강해진다”고 역설했다. 이는 그가 청풍기 대회에 출전하는 초등선수들에게 1인당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평생 유도계에 종사한 그에게 잊지 못할은 사와 기억에 남는 제자,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는 “청주 상무관에서 처음 만난 김창성 선생님과 전만식, 구동만 선생님…”하며 줄줄이 은사를 말했다. 그는 또 “유도로 이름 날리고 국위를 선양한 제자는 물론 자랑스럽지만 중도에 탈락하고 낙오한 제자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도 하다”고 스승으로서 가져야 했던 애환도 얘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도 남겼다. 그

가 청석고에 재직하던 때 자택 마당에 유도부 학습소를 짓고 많게는 17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먹이고 재우며 지도해야 했다. 청석고가 전국 최강을 자랑하던 시절이다. 그는 11년간이나 헌신한 부인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며 인터뷰를 마쳤다.❾





꿈에 한 걸음 다가선 그들의 도전

2020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

2020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가 10월 22일 강원도 양구 문화체육회관에서 펼쳐졌다.

지난 1월 이후 대한유도회에서 주최하는 첫 대회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이 대회에 참여했고, 대회도 하루만 진행됐다.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는 선수들의 열정이 있는 양구에 <柔道>지가 다녀왔다.

1월 이후 처음 열린 대회 '뜨거우면서도 조용했다'

올해 1월 강원도 동해에서 열린 '동트는 동해 2020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및 2020 초등학교 전국유도대회' 이후 첫 대회였다. 그간 대한유도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떻게든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와 유망주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 대회를 유치하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다. 결국엔 모든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가 됐다. 모든 유도인들이 아쉬워했다.

코로나19가 10월 12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자, 대한유도회는 곧바로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경찰청장기가 열렸다.

대한유도회와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각 종 목 체급별 우승자를 대상으로 경찰 채용의 기회를 줬다. 물론 우승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경찰로 채용되지는 않는다. 경찰 특채에 먼저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승

81kg 김민규



이후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중 최종 4명 만이 경찰에 임용된다. 아쉽게도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량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직까지 경찰보다는 선수로서 꿈을 더 이어가고 싶다는 게 주최 측의 판단이었다. 남녀 총 31명의 선수만이 양구에 왔다.

선수도 적고, 경기 수도 적었지만 유도의 박진감은 여전했다. 선수들의 땀과 투혼은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느껴졌다. 여자 57kg이하급에 나선 이재란(성동구청)과 남지영(안산시청)은 경기 도중 피까지 흘리는 접전을 펼쳤다. 잔여 도복이 미



여자 70kg급 최은솔

처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재란은 결국 결승전 때 김이현(포항시청)의 도복을 빌려 뛰어야 했다.

치열한 경기 속에서 우승자는 가려졌다. 여자부는 쉽게 승부가 갈렸다. 57kg이하급 결승에서는 김새리(충북도청)가 이재란(성동구청)에게 절반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63kg이하급에서는 명지혜(부산북구청), 52kg이하급은 김이현이 각각 우승했다. 70kg이하급에서는 최은솔(안산시청)이 박예린(충북도청)에게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가져갔다.

남자부는 치열했다. 여자부보다 참가 선수가 많았던 만큼 긴장감이 흘렀다. 60kg이하급에서는 박성영(블루나눔필룩스)이 권진택(여수시청)에 한판승을 거두며 짜릿한 승리를 쟁겼다. 73kg이하급에서는 함영진(수원시청)이 고승조(코레일)에 절반승, 81kg이하급에서는 김민규(대구광역시)가 이정민(경북체육회)과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한판승을 거뒀다. 김민규는 승리 후 포효했다.

90kg이하급은 길고 긴 접전 끝에 한경진(수원시청)이 김용일(대구광역시청)을 꺾었다. 100kg이하급에서는 조석현(대구광역시청)이 허준영(포항시청)을 이겼고, 100kg

이상급에서는 김우진(용인대양천유도관)이 우승했다. 우승자에게는 경찰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관리

코로나19 속 안정적 대회진행에 주력

청정도시 강원도 양구에서 펼쳐진다 하더라도 코로나19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스포츠가 경기 진행 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사람 간의

1m 이상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열 체크 및 QR코드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현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기장 입구 전 안내자들의 지침에 따라야 했다. 그리고 모든 검사를 통과하면 파란색 스티커를 부여했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경기장 입장은 불가했다.

대한유도회는 이번 대회에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을 꾸렸다. 심판진은 상임 심판 9명으로만 운영했다. 예전이라면 북적북적하고 많은 인원들의 함성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었겠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선수도 최소한, 지도자도 최소한으로 왔다. 대회를 운영하는 임원진 외에는 대회 현장에 오지 않았다.

매트 위에서도 선수들은 인사 대신 목례로 접촉을 최소화했다. 경기 입장 선수와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동선도 달랐다. 접촉하다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시상식도 없었다.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은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다. 대한유도회의 철저한 대비 덕분에 코로나19 의심자는 없었다.



**“어릴 적 나 같은 사람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자 57kg이하급 우승 김새리

Q 우승 후 소감은.

A 우선 오랜만에 우승이어서 행복했고 감격스러웠다.

Q 쉽지 않은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해 감격스러울 것 같다.

A 그렇다. 이번 대회에 욕심이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컨디션 유지나 몸 관리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A 사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년 전 다리 부상으로 '과연 다시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 슬럼프에 빠졌고 무서웠다. 하지만 쉬는 동안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로 인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거 같아 뿐

듯하다.

Q 이번 대회 우승에 힘입어 경찰 임용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다. 원래부터 경찰에 뜻이 있었나.

A 내가 밝아 보이지만, 사실 행복한 가정

에서 자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아버지

가 술을 좋아하시듯이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셨다. 항상 그 뒤엔 안 좋은 상황이

뒤따라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많았

다.

그래서인지 어린 내 맘에는 안전하고 포근

한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들이 이젠 없었으면 했다. 간절했

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게 되었고 전문적으로 운동에 매진하다

보니 잠시 경찰 생각을 잊고 있었다. 그러

다 이런 기회가 생겨 어릴 적 꿈이 다시 살

아났다.

Q 만약 경찰이 된다면 유도를 그만둬야 하

는데, 어렵지 않나.

A 유도를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찰 또한 지속적인 체력관리가 중요하다. 여

기서 그만두더라도 시간을 내어 유도를 할

것이다.

Q 자신의 유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땠는

지.

A 나에게 유도는 식사와 같았다. 초등학생

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왔다. 안 하면 한끼 식사 안 한 것과 같이

생각나는 운동이었다.

Q 만약 최종적으로 경찰이 된다면 어떤 경

찰이 되고 싶나.

A 요즘 흉악한 범죄들이 많다. 그러한 사

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안전하

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보호하는 경

찰이 되고 싶다.

Q 고생한 스스로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A 슬럼프를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인생 제 2막 시작
노력 끝에 결실 맺었다!**

남자 90kg이하급 우승 한경진



A 물론 어렵다. 젊을 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제2의 인생을 생각해야만 했다.

Q 자신의 유도 인생은 어땠던 것 같나.

A 어렵다. 이 세 글자다. 되돌아보니 너무

아쉽다. 옛날에 조금 더 노력했으면 더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 세

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 그

러나 성인 국가대표팀에서는 뛰어보지 못

했다. 성인 국가대표가 못 되어본 건 아직 도 한이 남는다.

Q 어떤 경찰이 되고 싶나.

A 내 성격상 억울한 장면 보는 것을 싫어 한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는 경찰,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싶다.

Q 유도를 하면서 고생한 스스로에게 한 마디 남겨보는 거 어떤가.

A 유도하면서 정말 고생했다. 경진아! ☺



Q 우승 후 소감은.

A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경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 30대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노력을 많이 했다. 우승을 해너무 좋다.

Q 결승전이 치열했다. 연장 접전 승부가 이어졌다. 힘들게 승리를 따냈다.

A 어느 시합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대회에서 더 힘을 내려고 했다. 내가 김용일 선수에게 약했다.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이번에 전략적으로 잘 풀어나가 다행이다.

Q 작년 이 대회에서는 3위에 머물렀다. 이번 1등이 뜻깊다.

A 작년에 4강에서 패하고 나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다. 1년을 잘 준비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둬 정말 기분이 좋다.

Q 이제 경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경찰 임용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A 1등 한 선수에게 신체, 적성 검사 자격이 주어진다. 면접도 마찬가지다. 날짜는 안 정해졌다. 그래도 올해 안에는 모든 검사와 면접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Q 유도를 그만둔다는 게 아쉽지 않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다. 특히 스포츠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2020년은 아쉬운 해였다.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2021년에 열린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도 불가능하다.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한국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늘도 도복을 고쳐입으며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회 없어서 훈련만 반복

아쉬운 시간만 흐른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유도 이벤트가 '스톱' 됐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2020 도쿄올림픽도 나가고,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나가며 경기력과 경험을 쌓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회는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인 진천선수촌도 문을 닫았다. 훈련 여건도 악화됐다.

유도를 비롯한 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3월말 진천선수촌을 나와 각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물론 소속팀에서도 지원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진천 선수촌만큼은 아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파트너와의 훈련을 통한 실력 향상 등을 팀에서 채우기엔 부족하다. 더군다나 실업팀 같은 경우는 프로스포츠 팀들과는 달리 훈련 여건이 열악하다.

한 유도계 관계자는 “올해 대회가 없으니 실업팀 선수들은 그저 훈련만 하면서 하송 세월했다. 시간이 아까울 뿐이다”고 안타까워했다.

각 나라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해 랭킹포인트가 걸려 있는 국제대회도 줄줄이 취소됐다. 국제유도연맹(IJF)은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불행한 입장이다. 유도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고 올림픽 예선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며 취소 이유를 전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2020 국제유도연맹(IJF) 주최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 이후 한국 유도 국가대표 선수단은 국제대회에 나가지 못

했다. 러시아 그랜드슬램, 조지아 그랑프리, 터키 그랑프리 등 모든 국제대회가 취소되었다. 그렇다 보니 국가대표 선발전도 자연스레 취소됐다.

원래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2020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및 꿈나무선수 평가전을 겸한 2020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이 대회는 물론이고 2020 청풍기전국유도대회, 제49회 전국체육대회,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가 모두 취소됐다. 2020 경찰청장기전국유도대회(2020 경찰청장기 유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열리긴 했지만 이 대회는 경찰에 뜻이 있는 선수들만이 참여했다. 2020 제주컵국제유도대회와 2021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한 2020 회장기전국유도대회도 취소됐다. 결국엔 2020년에 하나의 대회도 뛰지 않고 해를 보내는 선수도 있게 됐다.

한 지도자는 “선수들이 실업팀에서 훈련을 해도 기량 향상을 목적을 두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체급에 맞는 선수들과 훈련을 해야하는데, 실업팀 형편상 각 체급에는 많은 선수들이 있지 않다. 올해는 대회마저 없으니 선수들 실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기회가 되었으면”

다시 유도복 조여매는 선수들

불안정한 미래가 이어지던 10월 중순, 선수들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진천선수촌이 개방된다는 것이다.

10월 22일,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1월부터 진천선수촌 입촌



대회에서 빨리 뛰고 싶다. 언제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주, 아니 내일 바로 경기가 열려도 될 수 있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게 선수다. 한국 선수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및 촌외 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종목별 수요 조사를 통해 1차로 17개 종목 585명의 국가대표 선수팀이 훈련을 시작한다. 진천선수촌에는 촌외 훈련이 불가능한 사이클, 수영, 체조 등 3개 종목 선수들만 입촌한다. 유도는 촌외에서 훈련을 시작한다. 소속팀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선수들에게 희소식이다.

국제유도연맹은 내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2021 월드마스터스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다. 물론 11월이나 12월에 지금까지 연기되었던 국제대회가 열릴 수도 있지만, 한국 국가대표팀은 현재로선 만약을 대비해 올해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용인대 유도부 코치이자 한국 여자대표팀 전력분석관인 장성호 코치는 “코로나 19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잇단 대회로 크고작은 부상에 시달렸던 선수들은 이번 기회로 충분한 휴식과 재활을 거치며 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다. 대회가 열리면 더 나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예로 서울 보성고를 졸업하고 올해 용인대에 입학한 남자 73kg이하급 유망주 이은결은 올해 무릎 재활 운동을 착실히 수행했다.

장성호 코치는 “자신이 부족했던 기술이나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선수들은 자기 기량을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대회 취소가 됐다고 속상할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더 자기의 것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한 선수도 있다. 남자 100kg 이하급 조구함(수원시청)은 “팀의 도움 덕분에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도쿄올림픽이 미뤄지긴 했지만 1년은 금방 지나간다. 경기 감각을 올리고, 유지하는 데에는 경기만 한 게 없다. 대회에

서 빨리 뛰고 싶다. 언제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주, 아니 내일 바로 경기가 열려도 될 수 있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게 선수다. 한국 선수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2016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곽동한(하이원)도 새 기술 연마에 한창이다. 곽동한은 주특기가 업어치기다. 주특기인 업어치기를 경쟁자들이 간파하자, 곽동한은 최근 다리 기술을 익히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최고 자리에 설 수 없다고 봤다. 몇 년새 기술을 익힌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홀로 훈련장에 남아 하벽다리 연습을 한 시간씩 더 했다. 곽동한은 세계선수권(2015년), 아시아선수권(2015년), 아시안게임(2018년)에서 우승 했다. 올림픽만 더하면 그랜드슬램이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유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주위에 있던 동료들과 함께 유도장에서 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경험인지’.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대표의 가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더 나아가 한국 유도 성장과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길 <柔道>지가 기대해본다. Ⓜ



미니인터뷰

11월 3일
소집,
강훈련
시작이다

남자 유도국가대표팀
금호연 감독



■ 코로나19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떻게 지냈나?

A 일단 각 팀으로 돌아가 각자 훈련을 했다. 실업팀 2~3개 팀끼리 모여서 훈련을 했다고 들었다. 다시 대회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부상 있는 선수들은 부상 회복에 중점을 뒀다. 다행히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

■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치진들에게 어떤 숙제를 쳤나?

A 선수들의 부상을 체크하고,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다. 강훈련을 할 수 없으니 훈련이나 연습 경기를 수시로 체크하라고 했다.

■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게 불가능했다가 11월부터 다시 훈련이 가능하다.

A 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순회지도를 했다. 강훈련을 안 해서 그런지 체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더라. 또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경기력 걱정을 하고 있다. 이제 다시 강훈련 시작이다(웃음).

유도 같은 경우는 촌외 훈련이 가능하다. 11월 2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3일부터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장소는 용인대다.

■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국제유도연맹(IJF)에서 일정 발표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겠지만, 지금은 2020 도쿄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있다. 랭킹 포인트가 높은 대회가 개최된다면 그 대회엔 선수들을 출전 시킬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선수들이나 유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대표팀 수장으로서 한마디 부탁한다.

A 내가 평소 선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라고 말을 한다.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수들도 이번을 통해서 대표팀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하더라. 자만하지 말고,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모든 유도인들도 힘냈으면 좋겠다.

코로나 19에 애타는 유도부 학생선수들

“명백한 위기, 그러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유도부 학생선수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교내 체육관 폐쇄와 공식 훈련 금지에 따라 학교 유도장에서 땀 흘리고 있어야 할 학생 선수들은 집에서 개인훈련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훈련이 재개되었지만, 예전처럼 마음놓고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2020년은 어땠을까.

“쉽지 않아요”

시름 깊어진 고3 학생선수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초·중·고교 교육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사상 처음 신학기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고, 수차례 연기 끝에 등교가 결정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등교인원 제한 조치가 걸렸다. 일선 학교 재량에 따라 등교 또는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길 수차례. 꼬이는 학사 일정에 학

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끊이지 않았다. 학교 운동팀에는 더욱 혼란이 일었다. 교육청 방침으로 초·중·고교 학생 선수들의 공식적인 훈련이 금지됐다. 교내 체육관도 전면 폐쇄됐고, 코치진과의 접촉도 제한됐다. 그렇다고 대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었다. 1분 1초, 그저 아쉬운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다.

다. 홈트레이닝 영상을 공유하고, 단체 채팅 방에 각 훈련 일지를 써낼 것을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는 어려움이 많았다. 온라인상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이다. 대학에 가려면 각종 대회 성적과 입상 경력, 선수 기록 등이 담긴 경기 실적 증명서를 내야하는데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대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주산산업고 임희대 감독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선수들은 걱정이 많다. 무슨 방안을 찾아야하는데 대회가 계속 취소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니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많은 지도자들이 아쉬워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다. 1, 2학년 때 성적이 저조 했다가 3학년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시키는 선수들이 매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신스틸러’가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회가 열리지 않는 한 1, 2학년 성적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면 1, 2학년 때 부상이나 재활로 인해 성적이 좋지 않았던 선수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훈련을 쉬었을 때 선수들에게는 장단점이 있었다. 부상이 있던 선수들은 재활의 시간을 벌었다. 자신의 체급에 한계를 느끼던 선수들은 체급 조정을 통해 새로 운 체급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했다. 그러나 상당수 선수들이 경기력과 운동 감각 유지에 애를 먹었다. 한창 친구들과 훈련하며 많은 것을 배울 시기인데, 기술 향상을 꾀하기도 어려웠다. 혼자 운동하다 보니 이전보다 많은 유혹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도 단점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될 때 유도를 그만두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또 체중 관리에 실패한 선수도 여럿 있다고 들려온다. 대전대성중 김범식 감독은 “3, 4월에는 아예 유도복을 입지 못했다. 간단한 모니터링만 이뤄졌다. 체력훈련 위주로 개인 훈련을 안내하였지만 아직 어린 선수들이 라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고 말했다. 대전대성중은 코로나19로 인해 운동을 쉬던 기간, 유도부 2명이 선수



**유도 꿈나무들은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선수를 잡을 생각를 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와 유혹을 이겨내야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



생활을 그만뒀고, 몇몇 선수들이 일탈을 저지르는 불상사도 있었다고 한다. 경민고 오승용 감독 역시 “코로나19로 힘든 부분이 있었다. 꾸준히 훈련해야 기량이 느는데 함께 운동을 할 수 없었다. 개개인 별로 숙제를 내주긴 했지만 운동을 지켜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모든 유도자들의 아쉬움이 느껴졌다.

10월 중순부터 다시 힘찬 훈련 재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 10월 12일부터 각 학교들은 일제히 유도 훈련을 시작했다. 유도는 혼자서 하기 힘든 운동이다. 파트너가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고, 메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현재 각 학교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운동을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2020년 첫 대회 이자 마지막 대회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2020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은 고등학교 진학이,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은 대학교 진학에 있어 중요한 대회다. 이번 대회 결과로 2020년 성적이 가려진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성적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이번 대회는 성적 증명을 할 마지막 기회다. 이번 대회는 기회를 놓친다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지도자들의 한마음 한뜻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초중고 유도부 지도자들은 지금 이 위기를 선수들이 이겨내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경험으로 랭킹안 선수 생활을 하는데 있어 자양분이 되고, 위기를 겪고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임희대 감독은 “유도 꿈나무들은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이때 놀면 유도에서 1등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개인 훈련과 노력으로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선수를 잡을 생각를 해야 한다. 유도는 상대를 끌까지 보고 메쳐야 하는 운동이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 말라는 건 끝까지 하지 말라지 않나. 지금의 위기와 유혹을 이겨내야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도 선수가 해야 될 역할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식 감독은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해 친선 경기와 다양한 렉크리에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올지 누가 알았겠냐. 이 위기를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많은 선수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도복을 입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느 누군가는 ‘내가 입던 도복을 다시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빨리 놀고 싶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깨달은 게 많다. 그 깨달음이 앞으로 유도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이들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길 기대해본다. ☺



코로나19에 흔들렸던 유도관 SNS홍보, 디지털화로 활로 모색

유도관은 올 초 문을 열지 못했다. 문을 열지 못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관원 수입도 없었다. 한 마디로 휘청거렸다. 10월 말 기준, 코로나19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유도관의 현 상황은 어떨까.

“관원 줄고, 문 닫은 곳도 있어요” 한탄만이 가득했던 그들의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스포츠계도 피해 가지 못했다. 프로스포츠 경우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계속 겪었다. 또 경기가 재개됐을 때에는 무관중 경기로 경기를 해야 됐다. 본전은 커녕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가 계속됐다. 그래도 경기를 할 수 있던 부분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했다. 아마추어 스포츠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상당수 대회

가 연기를 거듭한 끝에 취소되거나 작게 개최됐다.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생활체육 대축전과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전국체전도 올해는 개최되지 못했다. 전국체전이 열리지 못한 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이후 70년 만이다.

유도계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대표 선발전과 각종 대회는 물론이고, 생활체육대회도 열지 못했다. 유도는 선수끼리 직접 몸을 맞대고 접촉이 이뤄지는 운동이다 보니 더욱 깊게 고민하게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각종 체육관과 무도관의 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유도관은 3~4월에는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4월, 예년 같았으면 관원들이 가장 붐비는 시기였다. 유도에 흥미를 느끼 친구의 손을 잡고 찾는 청소년들도

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특수 효과를 느낄 수 없었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도관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유도관의 관원이 20~30% 정도 감소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폐관한 유도관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다행히 큰 타격 없이 위기를 타개한 유도관도 있었다. 서울에서 이홍덕유도체육관을 운영 중인 이홍덕 관장은 “우리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관원이 110명 정도에서 90명으로 줄긴 했지만, 다른 유도관에 비해 피해가 적은 편이다.

다행이지만 다른 유도관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도관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이홍덕 관장은 홈트레이닝 동영상을 찍어 관원들과 공유했다. 유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유도 운동 영상도

공유했다. 덕분에 관원들은 꾸준히 유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운영이 재개되자 유도관으로 몰려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재개장한 유도관

2020년 내내 유도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코로나19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던 날, 다시 관원 맞이에 들어갔다. 철저한 방역은 물론이고 열 체크 및 동선 파악 등은 필수였다. 조금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했다. 마스크를 끼다고 해서 관원들의 불평은 없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랑하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한다. 다만, 그전에 해왔던 수업 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었다. 수업시간을 축소했다. 예를 들어 1일 오후 4시~5시, 7시~8시, 9~10시로 운영됐던 유도관 같은 경우는 맨 앞 타임인 4시~5시 수업은 뺐다.



현재 많은 유도관은 관원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뉴스매체나 SNS를 통한 홍보다.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적극 활용해 유도가 어렵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대한유도회 홍보대사 배우 이훈 역시 “제작자는 유도도 SNS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 아직 SNS 홍보가 미흡하다.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훈탱TV’에서도 유도 관련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웨어러블, ZOOM 수업

유도에도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도장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19를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웨어러블 착용

이다. 웨어러블은 학부모가 원하는 걸 데이터로 만들어 제공해 주는 것으로 가장 확실하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해 1주간의 유도 운동 강도를 알고, 단계별 운동량을 설정해 준다. 이를 통해 초급자에게는 낙법 등 기본기 운동을 위주로, 중고급자에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을 제공해 알려준다. 또한 1주일간의 심박 수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해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와 소통하여 수련생 건강 관리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웨어러블 착용을 통해 수면과 식사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화상회의서비스 줌(ZOOM)을 활용한 유도 원격수업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제 온라인 원격수업은 학교와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면에서 활용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면 이벤트를 통해 돈을 벌어왔던 여러 직종들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영상회의 형태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이뤄졌던 콘서트나, 요리 수업, 요가클래스 등은 온라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했다. 프로스포츠에서도 줌(ZOOM)을 통해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유도도 유도 기본기를 비롯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유도 기술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면 코로나19 속에서도 관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해 단합이 잘 되어 있던 유도인들은 더 단합해 위기가 올 때 즉각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일선 유도관이 어려워진다면 유도 뿐만 아니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위기 극복 준비를 잘 해 다시 시끌벅적한 유도관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길 기대해본다. ☺

코로나19 시대 맞은 한국 스포츠

대처 방안은

**계속 커지는 스포츠산업,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확산에 힘쓴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9년 약 81.5조 원 규모로 커졌다. 2017년 74.7조 원에 비하면 약 7조 정도 올랐다. 그 이유는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2021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 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을 살펴 보면 총 6조 8,2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3,470억 원 증액 편성했다. 체육 부문만 놓고 보면 스포츠 산업 금융 지원에 1,192억 원,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에 182억 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601억 원, 스포츠 유통센터 운영(45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725억 원),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221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온

2020년을 뒤흔든 코로나19로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그리고 대한유도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인 비대면 콘텐츠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스포츠분야에서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은 약 39억 원으로, 이를 통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1,000명을 양성한다. 660개 스포츠시설을 비대면 사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포츠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스포츠산업 융

자’ 사업은 2020년 662억 원에서 2021년 1,062억 원으로 늘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생활체육지도자 등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전년 대비 12,450명이 늘어난 72,000명에게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편성예산안은 1,129억 원으로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 했다. 체육분야는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등 첨단기술 기반 스포츠산업 육성을 신규로 지원한다. ‘스포츠 창업 지원’ 사업과 ‘스포츠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 역시 추진하여 성장 가능성 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2020 도쿄올림픽·페럴림픽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올림픽에는 국가대표단이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



도록 방역을 포함, 종목별 특별 훈련, 집중 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한다.

다시 뛰는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 재개

10월 12일에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다. 8월만 해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유도장을 비롯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야구, 축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 스포츠레저업종은 영업 중단은 물론 회원권 환불 요청 등의 이증고를 감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스포츠레저업종 매출은 전년 동기 52%나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시 실내체육시설과 프로스포츠는 어느 정도 활기를 띠기 시작 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1월부터 전진 국가대표선수촌 입촌 및 촌외 훈련도 재개된다. 종목별 수요조사를 통해 1차로 17개 종목 585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 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훈련인원 분산, 훈련 재개 전 참여인원 전원 코로나19 검사 실시, 선수촌 내 훈련 전·후 상시 방역, 개인 방역물품 지급 등 중대본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계획이다. 또 촌외훈련 시에는 인원 분산을 위해 종목별 훈련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훈련장 별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해 합숙훈련 방역 가이드를 배포했다. 일일 건강상태를 유선 확인하는 등 관리를 지속하며 추후 종목별 촌외 훈련현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훈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방지를 위해 34개 종목 970여명 선수

를 대상으로 비대면 훈련을 지원해왔다.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한 선수들의 사기저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도쿄올림픽 준비를 꾸준히 진행했다. 내년 도쿄올림픽 준비기간 동안에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해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엘리트 선수들은 최근에는 소집훈련 대신 온라인 프로그램 훈련 비중을 높였다. 대한체육회도 체육 활동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힘쓰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트레이닝과 스포츠 등 집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타바타 철린지가 그것이다. 타바타 철린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힘쓰는 대한체육회의 온라인 ‘홈트(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 Home+Training)’ 프로그램

이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과 수칙, 그리고 전문가 상담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남자 90kg이하급 과동한이 타바타 철린지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과동한은 “대표선수들도 소집훈련 대신 온라인 프로그램 훈련 비중을 높였다. 좁은 공간에서도 운동 효율

을 높일 수 있어서 좋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타바타 철린지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스포츠계도 언택트와 온택트를 접목시킨 새로운 쌍방향 소통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작지만 알차게’

대한유도회, 유종의 미 노린다

10월 22일에 열린 2020 경찰청장기전국유도대회가 강원도 양구에서 무사히 막을 내렸다. 올해는 많은 대회가 취소된 가운데, 대한유도회는 11월 말 2020년 마지막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는 7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대회 기간은 11월 25일~30일까지 예정이며, 장소는 강원도 양구가 유력한 상황이다. 참가 인원에 따라 대회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중고대회 개최는 필수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진학을 위해,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3학년 성적이 필요하다. 1, 2학년 때 부진하다가 3학년 때 대회 성적이 좋아 명문 유도부에 진학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대회 미개최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대한유도회 역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는 한 안전한 방역과 철저한 동선, 열 체크를 하면서 안전한 대회 개최에 힘을 다 할 예정이다.

국제유도연맹(IJF)도 기자회견을 펴고 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020 헝가리 그랜드슬램이 열렸다. 아시아권 선수들은 대부분 불참했고, 유럽권 혹은 북중미 출신 선수들이 출전했다. 2020 자그레브 그랑프리는 아직 미정이다. 만약에 열린다면 11월이 유력하다. 각 나라에서도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해 뜨거운 유도 열기를 느끼고자 한다. 2021년 1월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2021 월드마스터스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



스포츠분야에서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은
약 39억 원으로, 이를 통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1,000명을 양성한다.



‘클린 유도’로 가는 길 생각보다 멀지 않다



대한민국 유도계는 최근 일부 유도인들의 일탈로 큰 곤욕을 치렀다.

업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이와 관련해 비난받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쓰디쓴 악이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최근의 두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거울삼아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더 빠르게, 단호하게 칼을 뽑아들 수 있어야 한다.

잇단 파문에 유도계 엄중 대응

2018년 11월 유도선수 출신 신유용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교 시절 몸담았던 유도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체육계 미투’로 인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신 씨는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도 해당 코치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당시 대한유도회는 이 사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았다. 신 씨가 자신의 SNS에 처음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여론이 다수였다. 당시 유도회 관계자는 “주장이 엉갈리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입장 을 전한 바 있다. 결국 대한유도회는 1월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의 단 또는 급을 삭제하는 것) 조치를 결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해당

코치는 20차례 이상 성폭행 및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징역 6년5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4일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돼 복역 중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도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데다 유도선수의 꿈까지 포기해야 했던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아직 25세, 선수로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나이인 신유용이 유도선수의 꿈을 접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유도선수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 유도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준이 장본인이다.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여성은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엄청난 사건이었다.

대한유도회는 5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왕기준에게 영구제명과 삭단 징계를 내렸다. 유도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 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앞서 왕기준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대한유도회는 수사 진행 결과에 관계없이 왕기준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징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을 거울삼아 빠르게 징계 조치한 것이다.

왕기준이 누구인가. 10대 시절부터 한국 유도를 짊어질 최고의 유망주로 각광받았고,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73kg급에서

부상을 딛고 은메달을 따내며 스타덤에 오른 인물. 최근에는 유도 체육관을 열고 후진 양성에 힘쓰는가 싶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 유도계에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다.

한국 유도 발전에 이바지할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걸어찬 셈이다. 10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그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수평 리더십의 품격

대한유도회도 계속된 파문에 고개를 숙였

다. 지난 7월 3일 김진도 대한유도회장 명의로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서신’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우리 종목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공인의 신분으로 유도인의 명예를 지켜나가야 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사건이 발생되어 많은 유도인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라며 “그 어떤 교육과 제도가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다시 한번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앞서 언급한 성범죄만 문제가 아니다. 타 종목에서 최근 폭력과 체벌 등으로 꽂다운 나이의 국가대표 선수가 운명을 달리한 사례에서 나타났듯, 유교사상에 입각한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선후배 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강을 잡기 위한 폭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수평 리더십’을 추구하는 시대다. 선수들도 구시대적 지도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존의 악습은 모두 철퇴해야만 한다. ‘내가 한창 때는 이랬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준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발언하고 있는 김혜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구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전했다.

대한유도회 측은 “선수 및 지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폭력·성폭력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어떤 사유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제명 및 삭단’을 통한 영구퇴출을 일괄 적용

는데’라는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 대한유도회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죄를 짊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해선 안 될 일은 없다’는 한 해외 만화의 구절이 떠오른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클린 유도’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향후 모든 유도인들이 웃으며 매트에 올라서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

철인3종 故최숙현 같은 아픔, 다시 없도록...

1670-2876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의 모든 것

‘1670-2876’

지난 8월 5일 공식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상담, 신고번호다.
대한민국 모든 선수, 지도자, 체육인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닥쳤을 때
112나 119처럼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번호다.

스포츠인권 최후의 보루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상담 접수작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월 충격적인 빙상계 성폭력 의혹 사건 이후 출범한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

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신설 전담기관이다.

잇을 만하면 다시 떠오르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자정 기능을 상실한 탓이라는 비판 속에 스포츠혁신위는 ‘스포츠 비리, 불

공정 및 체육인 인권 침해에 대해 체육계 내부의 판단이 아닌 외부의 독립기구에 의한 엄정한 제재와 효과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 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고, 기존 체육계 신

고센터를 통폐합한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 6월 26일,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 감독 및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6개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았다. 20대 꽃다운 선수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 사건 직후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더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한 정부의 체육계 인권 보호 전담 기관을 향한 국민적 기대치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 신고센터 등 기존 체육기관들의 신고 기능

을 통합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설립 취지대로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게 된다. 센터장(비상근), 사무총장(상근), 직원 25명의 조직은 ‘반부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스포츠 비리 조사실과, 인권침해 상담, 조사지원 및 인권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스포츠 인권 진흥실로 구성됐다. 체육계의 관행이나 ‘제식구 감싸기’로 인한 용두사미식 조사,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외부 독립 기관에 의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센터 출범과 함께 ‘여성 인권 전문가’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초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3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대법원 양

형위원회 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하명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 재판연구관), 류태호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스포츠혁신위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비상임감사로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체육계 혁신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관심과 기대 또한 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부터 독립돼 운영될 것이다. 하지만 체육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파트너로서 진솔한 소통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혁신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선

스포츠윤리센터 업무 개시

2020. 8. 5. (수)



8월 5일 업무를 시작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숙진 신임 이사장.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8월 5일 문을 열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월 5일 업무를 개시한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숙진 신임 이사장 및 직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권 보호 및 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식

일시 | 2020. 9. 23 | 장소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과 경찰청 송민현 차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 이사장은 9월 23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들에게 스포츠윤리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숙진 신임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히 기관으로 자리잡아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문체부X스포츠윤리센터X경찰청 체육 공정성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전문성을 확보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9월 23일 문체부, 경찰청과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조사, 조사기법 공유 및 조사관 교육, 전문조사관 선발 및 우수 인재 추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9월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도 MOU를 체결했다. 인권침해 방지 예방 교육, 비위 체육 지도자에 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과 함께 체육 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11월 말

완료 목표로 진행중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역할은 향후 더욱 확대, 강화된다. 지난 8월 4일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소위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월 후 시행될 이 법안의 골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 강화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센터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 징계 등이 이뤄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올해 22억9000만원으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예산 역시 내년 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됐다.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거점 센터 3개 추가 설치도 계획중이다.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진행중이다.

‘신고하면 틀림없이 해결된다’는 현장의 믿음 얻어야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170건의 신고와 상담을 접수했다. 신고는 48건(인권침해 19건, 비리 29건), 상담은 122건이었다. 인권침해 신고건 중 폭력이 11건, 성폭력도 3건이었다. 신고, 상담 경로는 전화(1670-2876)가 159회(72%)로 가장 많았으며, 홈페이지와 이메일 각각 26회(12%), 대면 7회(3%), 우편 2회(1%) 순이었다. 신고·상담 접수자는 가족(76회·34.6%)이 가장 많았다. 선수(50회·22.7%), 지도자(26회·11.8%)가 뒤를 이었다. 익명으로 신고·상담한 경우도 8회였다.

당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진심’이다. 여태까지 이름만 바꿔 수없이 명멸했던 신고센터, 클린센터들과는 과정과 결과, 모든 면에서 분명 달라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면 틀림없이 해결된다’는 현장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벼랑 끝에 몰린 체육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체육인 스스로 믿고 기댈 든든한 ‘비빌 언덕’이 돼야 한다. 완벽한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의 메카가 돼야 한다. 체육계를 향한 편견 없는 시선, 존중과 이해는 필수다.

무엇보다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체육인 스스로 (성)폭력, 비리가 별불일 수 없는 깨끗하고 올바른 체육 생태계를 지켜내길, ‘정정당당’ 스포츠맨십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환히 비추는 거울이 되길, 그래서 신고도, 상담도 필요 없는 세상, ‘라면 말이야’ 과거형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추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 ‘스물 두 살의 철인’ 고 최숙현의 가슴 아픈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다. ●

기획

스포츠 인권을 말하다

글 이정원 기자 사진 문복주기자

“피해 본 사람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강래혁 스포츠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스포츠인권

국내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전에도 체육계 폭행과 성폭력 사건 등으로 체육계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우리 유도계 역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우리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래혁 변호사를 통해 스포츠인권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한국 스포츠계에 더 이상 어두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 스포츠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 기가 인권침해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데요. 이토록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예전부터 나왔던 성적 지상주의나 지도자의 처우가 문제죠. 스포츠 지도자의 경우, 따지고 보면 계약직이잖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차근차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단기간에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쫓겨서 자기가 원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 변호사님이 겪은 스포츠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면요.

A 대한체육회에 있을 때 경기도여자컬링팀이 지도자를 상대로 폭언 및 불협화음 이유를 들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선수들이 단체로 사표를 냈어요.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조사를 통해 협회에서 징계를 내렸어요. 당시 지도자들은 사직과 징계를 받았고, 그러면서 사태가 조금 일단락이 됐죠(이후 선수단은 다시 사퇴서를 반려하고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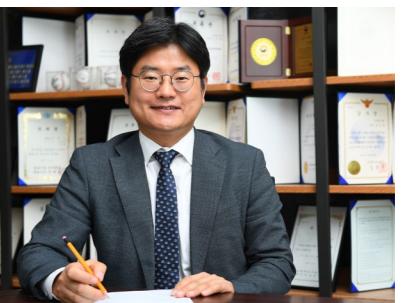
■ 아무래도 유도 같은 무도 종목은 내부 위계질서가 강합니다. 또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보니 어떤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쉽사리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A 이전 예전과 다르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바로 징계를 내려요. 즉, 한

번 실수를 하면 다시 스포츠계에 활동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해요. 지도자들은 예전 지도 방식을 벗어나서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해요. 선수들 간에도 폭력·성폭력이 발생해요. 최근에는 형사 처분이 강화되고 있어요. 한 번 실수하면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조심해야죠. 미디어는 사건을 조사해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성폭력 문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2차 가해 문제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도하도록 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만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라고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피해는 누구도 막을 수 없거든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해요. 피해자 입장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균형을 이루며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 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는 그 사건으로 인해 선수 혹은 지도자 인생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나 하나로 인해 다른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로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평소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강래혁 변호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 ‘혜명’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고문변호사,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로도 활동 중이다.

글 이정원 제이앤제이미디어 기자

유도 지방화 시대(10) -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면서 스포츠도 빠르게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경기가 읍·면 단위 소도시에서 빈번하게 열리고 지방 팀들의 성적도 몰라보게 향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유도다. 지역별로 뚜렷한 실력 편차를 보이던 경기력도 어느 사이 평준화되었고 특정시도가 독식하던 각종 대회 메달도 이제 골고루 나눠 갖고 있다. <柔道>지는 차례로 각 지방 유도회를 찾아가 그 지역 회장을 인터뷰하고 지역 팀과 유도장 팀방을 통해 실력 평준화의 실상을 분석해본다.

대전 유도현황		
구분	팀	인원(명)
초등학교	2	5
중학교	8	19
고등학교	2	29
대학교	1	7
실업팀	1	8
유도관	20	-

※ 대한유도회 등록 기준

“인간미 넘치는 유도인이 됩시다”

대전광역시유도회 오경환 회장

대전광역시유도회 오경환(68) 회장은 2013년도부터 대전시유도회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 생활 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한 대전시유도회 통합 초대 회장으로도 당선됐다. 대전 유도를 이끌던 오회장의 임기도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연임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경환 회장은 이제 뒤에서 후배 회장의 뒤를 든든히 밟쳐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한 평생 유도와 함께 살아온 오경환 회장을 지난 10월 19일에 만나고 왔다.



씨름 유망주의 유도 전향

오경환 회장은 사실 처음부터 유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씨름을 먼저 했다. 그러나 공주중 재학 시절 공주 유도관을 지나가다 절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유도인의 모습을 보고 유도의 매력

에 끌 빠지게 된다. “중학생 때 공주유도관

을 지나가는 데 원가 마음에 와닿더라. 마음에 썹 들었다.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예시예종이다. 씨름이랑 유도는 손기술이나 발기술이 비슷하다. 전향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적응하는 데에는 문

제가 없었다.”

오 회장은 곧바로 유도 선수로 전향을 했고 공주고·용인대를 거쳤다. 대학 졸업 후 오 회장은 선수 생활을 접었다. 그리고 1976년 도에 공주 신풍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유도 사랑은 선생님이 된 이후에도 식

지 않았다. 전공인 유도와 어릴 때 배웠던 씨름을 학생들에게 알려줬다. 그때 중등 씨름 대회에서 1등을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인천시청 여자유도부 감독 이보은이다. 당시를 회상한 오경환 회장은 “현재 인천시청 이보은 감독도 원래는 씨름을 먼저 했다. 그러다 이보은이 씨름하는 것을 보고 비봉고에 계시던 장인곤 선생님이 ‘저 학생은 유도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 그때 이보은 감독도 유도로 전향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1981년도에 동산고 유도부 감독 겸 선생님으로 보직을 이동했다. 또한 그 해부터는 충남유도회 평이사, 경기이사, 심판이사를 거쳤다. 또한 충남유도회와 대전시유도회가 분리된 1988년도부터는 대전시유도회의 각종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전무이사, 상임부회장 지금의 회장에 이르기까지. 1988년도부터 대전시유도회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오경환 회장이다. 물론 그사이 2000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유도선수권 대회 여자대표팀 코치, 2004년 헝가리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여자대표팀 코치도 맡았다.

오경환 회장이 강조하는 단합과 예의
오경환 회장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 지금 까지 대전시유도회 7·8대 회장을 맡고 있다. 오 회장은 대전시유도회 하면 단합과 예의가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 예의 안에는 인사도 있다. “우리는 회의를 하면 자유 자재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대전유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죠.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단합대회도 하고, 하계 워크숍도 하면서 단합을 다지고 옵니다.”

말을 이어간 오경환 회장은 “나는 학생들에게 예의를 중시한다. 교편을 잡을 때에도 항상 했던 게 수업 시작 전 학생들과 인사

전용 유도장 건립은 우리 유도인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유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꼭 전용 유도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 유도를 그만두는 일도 있었다.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경환 회장은 “발전해야하는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오경환 회장의 임기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오 회장은 “이제 회장 자리를 후배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줘야 한다. 이러한 풍토를 잘 조성해야 한다. 훗날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오경환 회장은 대전유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12개밖에 없던 유도관이 20개로 늘어났다. 또한 대전시 5개구 중 4개구(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에 지부를 만들었다. 대덕구도 지부 구성을 계획 중이다. 오 회장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유도 수업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매트를 지원했다. 유도 선수가 아니더라도 평소 학생들이 유도를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래도 오경환 회장은 “내가 많이 부족했다. 초등부 팀 창단을 해야하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회장은 임기 마지막 해에 코로나19가 터져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일 년이 그냥 지나갔다. 그것도 운명이기에 받아들였다. 오경환 회장은 소원이 하나 있다고 했다. 그는 임기가 끝나면 후임 회장을 도와 전용유도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 유도장 건립은 우리 유도인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유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꼭 전용 유도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오 회장은 대전 유도인들에게 한 마디 남겼다. “유도 발전을 위해 기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미가 넘치는 유도인이 되어야 한다. 기술은 되는데 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사고만 친다. 인간미를 갖춘 상태에서 기술을 연마해야 좋은 유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의 지키는 유도인이 되어 보자.”

전교생이 즐겨요!

- 대전 대성중 유도부 -



대전에 유도부가 있는 중학교는 대전체중과 대전대성중 뿐이다. 그 중 대전대성중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980년도부터 유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유도부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도관을 가득 메우는 10명의 학생은 100명 이상이 모여있는 느낌을 들게 한다. 10명의 소수정예로 중등유도계의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대전대성중을 <柔道>지가 찾아갔다.

전교생, 주 1회 유도 수업

유도에 대한 애착 남달라

대전대성중은 1954년에 개교했다. 경천(하나님을 공경하자), 위국(나라를 위하여), 애인(사람을 사랑하자)이라는 교훈 아래 대전의 명문학교로 자리 잡았다. 유도부를 창단 한 건 1980년이다. 현재까지 많은 학생 선수와 지역 대표 선수는 물론이고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했다. 60kg이하급 채준희(여수시청), 81kg이하급 송민기(양평군청)과 정승현(여수시청), 90kg이하급 박영찬(남양주시청), 100kg이하급 황민호(용인시청)까지 대전대성중이 자랑하는 동문이다. 2017년도부터 대전대성중 감독직을 맡고

있는 김범식 감독 역시 대전대성중을 거쳐간 유도인 중 한 명이다. 김범식 감독은 1988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 환호를 지르던 김재엽의 모습을 보고 유도에 뚝 빠졌다. 청주대 체육교육과 졸업 후 옆 학교인 대전대성고에서 체육교사로 세월을 보내다가 2017년 대전대성중의 체육교사로 배정됨과 동시에 유도부 감독을 맡았다고 한다.

김범식 감독은 “우리 대전대성중은 유도부 외에도 전교생이 주 1회 체육시간을 통해 유도를 한다. 유도를 수련하는 특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학교 어 있다. 소수정원으로 유도계의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중 김범식 감독

이 눈여겨보는 선수는 김성우, 오용관 그리고 이선준이다. 모두 3학년이다. 특히 이선준은 대성중의 주장이다. 이선준은 2019년에 열린 제주컵 남중부 55kg이하급에서 금메달을 땄다. 김 감독은 “1학년 때부터 전국 대회 입상을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칭찬했다. 이선준의 장점은 잡기다. 이선준은 또래 선수들보다 방어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능하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단점은 체력이다. 왜소한 체격이다 보니 경기 시간이 흐를 수록 지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게 김범식 감독의 설명이다.

코로나19가 아쉬웠던 2020년

모든 중학교가 그랬지만 대전대성중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초에는 학교에 모여 운동하는 것도 꿈꾸지 못했다. 김 감독은 “3, 4 월에는 아예 유도복을 입지 못했다. 간단한 모니터링만 이뤄졌다. 체력훈련 위주로 개인 훈련을 안내하였지만 아직 어린 선수들이라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다”라고 말했다. 말을 이어간 김 감독은 “사실 선수들은 대회에 나가 메달을 획득하면 성취감도 얻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다음 경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회가 무산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2명의 선수가 선수 생활을 그만뒀고, 몇몇 선수들이 김범식 감독의 마음



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김범식 감독은 좌절하지 않고 선수들과 다시 손잡고 일어났다. 김범식 감독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선수들과 어떻게 하면 흥미 있고,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많은 지도 방법을 개발했다”라며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해 친선 경기와 다양한 게임 등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대전대성중 선수들은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지침을 지킨 후 정상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실력도 좋지만 성실함과 인성이 우선” 김범식 감독의 바람

대전대성중 양성우 코치가 아빠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김범식 감독은 엄마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 조화롭다. “양성우 코치가 아이들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하면, 나는 선수들의 고민이나 심적인 부분을 편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범식 감독이 선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예의다’라고 말한다. 김 감독은 “인성이 중요하다. 유도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선배와 후배 사이, 친구 사이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자세를 갖도록 선수들에게 지도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김범식 감독은 평소 선수들에게 대회 성적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그저 유도를 지루해하지 않고 즐기길 바란다. “유도 선수라면 시합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게 큰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꾸준히 유도를 즐기고 사랑하는 선수를 만드는 게 더 좋다.” 또한 김범식 감독은 아이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열중하는 ‘공부하는 선수’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표했다. 이제는 운동선수들도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선수 생활한다고 수업을 빠지거나 학교생활에 소홀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견뎌 낸다면 더 훌륭한 유도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대전대성중은 다시 유도 명문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도 유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린다. 끝으로 김범식 감독은 자신을 따르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다고 한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훈련, 전국 대회 취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나를 잘 따라준 우리 선수들이 너무 고맙다. 칭찬과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유도인이 되어보자. 대전대성중 유도 부 파이팅!”



개관, 폐관 그리고 재개관 대전 유도와 함께 걸어온

대전 한성 유도관



1997년에 개관한 대전한성유도관. 2005년까지 운영되다가 조정복 관장의 교사 임용 발령에 의해 2016년 8월까지 문을 닫았었다. 그러던 조정복 관장(49)은 유도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2016년 9월 다시 대전한성유도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문을 열었다. 대전의 대표 유도관을 자부하는 대전한성유도관. 이 유도관은 다른 유도관에 비해 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높은 유도관이었다.

“유도로 시작했으니

유도로 끝을 봐야죠”

전문에서 언급했듯 대전한성유도관의 관장은 조정복 관장이다. 조정복 관장은 1997년 대전한성유도관 초대관장이었다. 그러나 잠시 모교인 대전대성중에서 교편생활을 한 후 2016년 9월 유도관을 다시 개장했다. “지금까지 유도와 함께 살았고 유도로 끝을 보고 싶었다. 많은 이들에게 유도를 알려 유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조정복 관장이 유도에 빠진 해는 1984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다. 대성중 재학 시절 체육 시간에 유도부 선수들이 유도하는 모습을 보고 푹 빠졌다. “상대를 메치는 모습을 보고 스릴을 느꼈다. 친구 따라 몇 번 하는 데 재밌더라.”

지금도 조정복 관장은 중학교 1학년 때 유도를 하다 땀 흘린 후 맞은 가을바람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그 가을바람은 조정복 관장의 인생에 있어 맞은 최고의 바람이었다. “땀 흘린 후 집에 걸어가면서 ‘쏴~’하면서 맞은 가을바람 느낌은 최고였다. 그때 ‘유도가 이런 운동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대전한성유도관은 대전 유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초중고 유도부 연계 시스템이 활발하지 않을 시기에 유도 유망주들을 여럿 학교에 추천해 주면서 그 선수들의 기량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했다. 즉, 초등학교 때 유도를 배운 사람은 중학교 유도부로, 중학교 때 유도를 배운 사람은 고등학교 유도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남자 60kg이하급 채준희

(여수시청), 81kg이하급 채성희(철원군청)- 정승현(여수시청)-송민기(양평군청), 90kg 이하급 박영찬(남양주시청), 100kg이하급 황민호(용인시청) 등이 조정복 관장의 제자들이다. 여전히 이들은 조정복 관장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유도관을 찾곤 한다. 대전을 대표하는 유도관답게 대회만 나가면 상위 성적을 기록했다. 2018년도부터 매년 두 번씩 열린 대전광역시 동호인 유도대회에서 4연패를 달성했다. 또한 2019년 전국생활체육유도대회 최우수단체상 수상 및 중등부 단체전 우승, 동트는 동해 2020 전국생활체육유도대회 중등부 단체전 우승 등 화려한 역사를 지닌다. 조정복 관장은 지난 2009년에 대전광역시 유도인 중 최초로 국제심판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柔道

>지가 대전한성유도관에 방문한 날만 운동을 하러 온 이들은 어림잡아 40명이었다. 왜 사람이 많은지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비중 70%, 왜?

“스파르타식보단 흥미 위주”

조정식 관장은 초반 유도관을 운영할 때 스파르타식으로 유도를 가르쳤다고 한다. 조정식 관장은 그때 이야기가 나오자 많이 아쉬움을 표했다. 실력을 늘리지 않으면 관원들은 흥미를 잃어갔다. 그러다 보니 관원의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조정식 관장은 그때 마인드가 바뀌었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원들에게 유도의 흥미와 재미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겸손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관원들을 가르치려고 항상 노력 중이다. 관원들도 잘 따라주고 우리 김윤철 사범도 잘 가르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 한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 조금 문제가 있던 청소년 아이들도 여기서 유도를 배우면서 변하고 있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대전한성유도관의 관원 중 70%가 초중고 학생들이다. 또한 아빠 따라 유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예가 두 아들의 아버지 박상훈, 큰 아들 박태영, 작은 아들 박태성이 다. 두 아들은 아빠를 따라 유도를 시작한 케이스다. 특히 박태성은 전문적인 유도 선수의 길을 걷는다. 내년에 대전대성중 유도부 진학이 예정되어 있다.

“그저 좋고, 재미있어했으면”

대전한성유도관의 목표

대전한성유도관도 코로나19로 인해 올 초 문을 닫았다. 그래도 다행히 대전한성유도관은 코로나19 피해가 다른 유도관보다 적었다. 정부의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각



가정의 공지문을 내려 어떻게 코로나19를 대처할 것인지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적어 보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개장을 했을 때도 관원들의 신뢰는 컸다. 그만둔 관원은 거의 없었다.

대전한성유도관이 꿈꾸는 유도관은 무엇일까. 조 관장은 “지금처럼 유도를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말을 이어간 조정복 관장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 그게 유도다. 악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은 유도를 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유도인들이 그러하겠지만, 조정복 관장은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유도관을 다니는 관원들에게 고마움이 많다고 한다. <柔道>지에게 꼭 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조금 더 유도를 재밌게, 흥미 있게 가르치고 싶은데 아직 부족하다. 자기만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언젠가는 우리 유도관에서 올림픽에 나가는 관원들도 있었으면 좋겠다(웃음). 관원들이 기초를 다지고, 실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





유도를 즐기는 연예인

홍보대사 배우 이훈
“유도는 종합선물세트”

많은 연예인들이 유도를 사랑한다. 그 가운데서 유도를 사랑해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에 까지 입학한 연예인이 있다. 바로 카리스마 배우 이훈이다. 이훈은 2015년 KBS 예능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을 통해 유도를 처음 접했다. 그동안 복싱, 헬스 등 남성적인 운동을 통해 강한 남성미를 뽐냈던 이훈은 유도를 통해 부드러움과 예의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유도의 매력에 푹 빠진 이훈과 코리아 유도체육관(압구정 본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말로만 유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 진심으로 유도를 사랑하는 남자였다.

**예능 프로그램 통해 처음 접한 유도
“촬영할 때는 실제로 3~4시간씩 훈련
했죠”**

▣ 이번에는 연예인 이훈이 아닌 유도 홍보대사 이훈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유도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인사 전하며 인터뷰 시작해볼까요.

▲ 유도 홍보대사로 더 열심히 해야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유도를 사랑하는 배우 이훈입니다.

▣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슬픈 이야기지만 저 역시 코로나19 직격 타를 맞았어요. 촬영 예정이던 영화가 무기 한 연기되고, 올가을 촬영하기로 한 드라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운동 관련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 촬영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 유튜브 채널 잠시 소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유튜브 채널명은 ‘훈땡 TV’예요. 지금까지 한 콘텐츠는 홈트레이닝, 크로스핏, 필라테스 관련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상렬과 개그맨 친구들을 불러 솔방도 했고요. 감사하게도 구독자 수가 4천 명이 육박했어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유도 관련 콘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유도관문을 닫았었잖아요. 이제 유도장 탐방도 시작해야죠.

▣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 그렇죠. 우리 둘째 아들이 휴문중 2학년 농구 선수예요. 둘째도 올 초에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했죠. 하루에 400m 운동장을 25바퀴씩 뛰었어요. 물론 둘째보다는 기록이 좋진 않았지만 한 시간 안에는 완주했죠.

▣ 근황 이야기는 이쯤 하고, 유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유도회 홍보대사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나요.

▲ 2015년 KBS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 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당시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들이 자연스럽게 유도 홍보대사가 됐죠.

▣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동네 예체능’을 촬영하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 지도자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저는 그때 유도를 처음 접했어요. 이원희 코치에게 지도를 받았는데요, 훌륭한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다 보니 실력이 쭉쭉 늘더라고요. 시작한 지 한 세 달 만에 다른 체육관 관원들을 이기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당시 우리는 일반인들보다 훈련량이 3~4배는 많았어요. 일반 관원분들은 직장인이기에 운동량이 저희와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이원희 코치는 연예인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쳤

어요. 저에게는 밟다리만, 이재윤(배우)은 굳히기,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한 고세원(배우)은 잡기 기술이 능하니까 잡기. 그렇게 각자 한 가지씩만 훈련했어요. 아마 영상을 찾아보시면 저는 밟다리만 하려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겼는데 나중에는 그 기술이 간파당하더라고요(웃음).

▣ 유도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많지 않나요.

▲ 이종현, 조타, 이재윤, 고세원, 배호걸 등이 유도를 좋아하죠. 사실 제가 ‘우리동네 예체능’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을 모아 최초의 연예인 유도단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각자 스케줄 문제 때문에 쉽게 모일 수 없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흐지부지됐죠. 내년에 다시 하고 싶은데 연예인은 일하는 시간이 항상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우리동네 예체능’ 유도단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 이훈 홍보대사가 뽑은 가장 유도를 잘 하는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 ‘우리동네 예체능’ 나온 사람들이 유도를 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원이는 개포동에 있는 유도관에서 꾸준히 유도를 하고 있고, 이재윤도 유도는 아니지만 주짓수를 오래 해 굳히기 기술이 좋아요. 특히 조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포항의 유도 명문인

동지고를 나왔죠. 자기 말로는 안바울 선수랑 라이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 홍보대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 홍보대사를 하다 보니 선수들과 연습할 기회가 많았어요. 특히 여자 선수들이랑 많이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김성연(광주 도시공사), 김잔디(필룩스) 등 대표 선수들이 저를 갖고 놀더라고요. 또한 제가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15학번이에요. 영광스럽지만 대표 선수들과 실기 수업을 해요. 한희주(필룩스) 선수랑 많이 해봤는데 체중이 거의 20kg 차이가 있는데도 전혀 잡지 못 하겠더라고요. ‘아, 선수들에게 정말 까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여자 선수의 무서움을 확실히 느꼈죠.

**용인대 유도지도경기학과 15학번 이훈
“젊은 학생들의 도움, 너무 감사하죠”**

▣ 운동은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나요.

▲ 사실 어렸을 때부터 무도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가 다혈질인 것을 아시거든요. 제가 유도 배우면 괜히 싸움질만 할 것 같으니 안 시키셨죠.

▣ 그럼 어떤 운동을 권유하셨나요.

▲ 육상, 야구 등을 권유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격투기 운동을 원하니까 고등학교 때 검도관에 다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검도에는 매력을 크게 못 느꼈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 복싱을 했죠. 복싱은 프로자격증도 있어요. 복싱 이후에는 MMA도 해봤고요. 그러나 ‘우리 동네 예체능’을 통해 유도복을 입게 됐네요.

▣ 유도를 하기 위해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에 입학했다는 화제를 모았어요. 어찌다 입학을 하게 되었나요.

A 유도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연기를 하고 싶으면 연극영화과를 가고, 연극영화과가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도하면 떠오르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 용인대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유도를 배워보고 싶었죠.

만학도 전형 덕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역사상 유도를 가장 못하는 사람이 저예요.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한 분은 40년 전에 용인대를 다니다가 사정 때문에 그만두고, 환갑이 되어 다시 오신 동기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보다 유도를 잘 해요. 그럼에도 부끄럽지만, 세계 최고 유도대학에서 유도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어요.

▣ 어린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점도 있고,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A 도움을 많이 받았죠. 우리 학과는 파트너와 함께 하는 실기 시험이 많아요. 파트너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저에게 유도도 알려주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죠.

▣ 일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유도에 푹 빠진 계기가 있을까요.

A 예시예종, 유능제강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도는 부드러움을 앞에 세우는 운동이에요. 다른 종목은 지는 사



2022년 50살이 되는 해에
생활체육유도대회에
나갈 생각이에요.
2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기던 지난 2022년
생활체육유도대회에 나가는 게
목표에요.

▣ 일반인들이 유도를 꺼려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상입니다.

A 지루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낙법부터 시작을 해요. 2~3개월 동안 낙법을 꾹 참고 하면 부상 당할 위험이 적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기간을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유도장에서 낙법과 기본기를 함께 한다고 하고요. 체육관들이 일반인 분들도 재밌게 유도를 하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조용철, 조인철, 이원희까지 이훈이 유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유도의 매력은 뭘까요.

A 유도는 한판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일본 유도에 비해 1/100 규모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옛날 우리나라 유도인들이 1984 LA올림픽, 1988 서울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을 보고 ‘와, 한국 유도가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 유도 대회를 보면서 희열을 느낀 순간이 있나요.

A 그럼요.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중 세 사람을 말하고 싶어요. 먼저 대한유도회 조용철 부회장님의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조용철 부회장님이 일본 유도 역사상 최고라 불리는 사이토 히토시를 1985년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물리치고 금메달을 딴어요. 일본은 유도가 규모가 크고, 사이토 히토시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손흥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선수를 조용철 부회장님이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조용철 부회장님은 올림픽에도 두 번을 나갔잖아요. 1984 LA올림픽에서는 은메달, 1988 서울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딴고요. 저는 정말 그 부분도 대단하다고 봐요. 당시 우리 나라 유도가 정말 열악

했어요. 김치와 밥만 먹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승전고를 울린 당대 유도 선배님들은 정말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998 방콕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한 팔을 못 쓰는 상황에서도 일본을 상대로 금메달을 딴 조인철 前 감독이에요. 목디스크 부상으로 인해 한 팔을 못 쓰는데도 승리를 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유도인들의 정신력은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2004 아테네올림픽 이원희 코치. 한판승의 사나이. 전무후무한 전경기 한판승이에요.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매 경기 한판승으로 경기를 가져온다는 건 대단하다고 봐요. 물론 메달 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힘을 낸 우리 유도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요. 어려움 속에서도 국위 선양을 해 감동을 받았어요.

▣ 옛날 유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활약하는 유도 선수 중에서도 좋아하는 선수 있나요.

A 조구함(수원시청) 선수죠. 체중을 20kg 감량했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무릎 수술받고 재활에도 성공했고요. 특히 조구함 선수는 예의가 바른 선수예요.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지만 조구함 선수를 보면 항상 조용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생각을 해요. 안창림

(남양주시청) 선수도 좋아해요. 안창림 선수는 재일교포 3세잖아요. 어릴 때 일본에서 유도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요. 한국 국적을 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했는데, 꼭 딸 거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안바울(남양주시청) 선수도 도쿄올림픽이 두 번째 올림픽 도전인데 좋은 결과 얻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 여자 국가대표 맘언니 김성연 선수를 비롯해 김잔디, 한희주, 박다솔(순천시청) 등 여자 선수들도 좋은 결과를 얻

었으면 좋겠어요.

유도인 이훈의 목표

‘2022년 생활체육대회 참가’

▣ 혹시 유도 외 취미는 어떻게 되나요.

A 골프를 좋아해요. 유도나 골프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예전에는 힘 있는 운동을 많이 했다면 이젠 유연하고 부드러운 운동을 하려고 해요. 골프를 하다 보니 배우 역할에도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김두한 역 같은 강한 역할만 맡았잖아요. 그러나 이젠 유도나 골프를 통해서 부드러움을 배우고 있어요. 저도 부드럽고 지적인 연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도복을 입으면 기품 있고 품위 있는 유도인들처럼 한살 한살 멋지게 늙어가고 싶어요.

▣ 이훈에게 유도란 어떤 운동인가요.

A 유도란 배우로서 해야 될 운동이에요. 유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연기를 하는 법을 알았죠. 예전 연기 영상을 보면 슬프면 슬픈 것만 계속하려고 했어요. 연기도, 인생도 복잡하지 않아요. 화난 감정 안에도 엄청난 많은 미묘한 감정들이 존재해요. 연기는 미묘해요. 유도라는 뜻처럼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유도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요.

A 유치하게 이야기하면 ‘폼 나는 운동’, 요즘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플렉스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멋있어요. 유도는 도복을 딱 입고 있으면 품이 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유도관과 학교들이 힘들어해요. 위로의 한마디 전해주신다면요.

A 유도 경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버텨라’, ‘텝치지 마라’예요. 유도는 끈적끈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버텨야 해요. 많은 유도인들이 힘들겠지만 버텨야 한

다고 봐요. 지금 유도관을 열기 시작했는데,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유도를 하러 더 많은 분들이 올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을 반길 준비를 해야 해요.

▣ 유도인으로서 목표가 있나요.

A 일단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기본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2022년 50살이 되는 해에 생활체육유도대회에 나갈 생각이에요. 2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기던 지난 2022년 생활체육유도대회에 나가는 게 목표예요.

▣ 앞으로 한국 유도 발전을 위해 홍보대사로서 어떻게 기여하고 싶나요.

A 유도복을 입고 많은 방송이나 SNS 채널에 출연해 제가 유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생각해요. 생활체육대회에도 나가 무도인의 모습을 보일 거고요. 많은 분들에게 ‘유도가 어려운 운동이 아니다. 트렌디한 플렉스 운동이에요’라고 홍보하고 싶어요.

▣ 배우 이훈으로서 계획도 들어보고 싶어요.

A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드라마, 영화를 다시 찍을 예정이에요. 예전에는 카리스마 역할에 치중했다면 이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사한 배우,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배우,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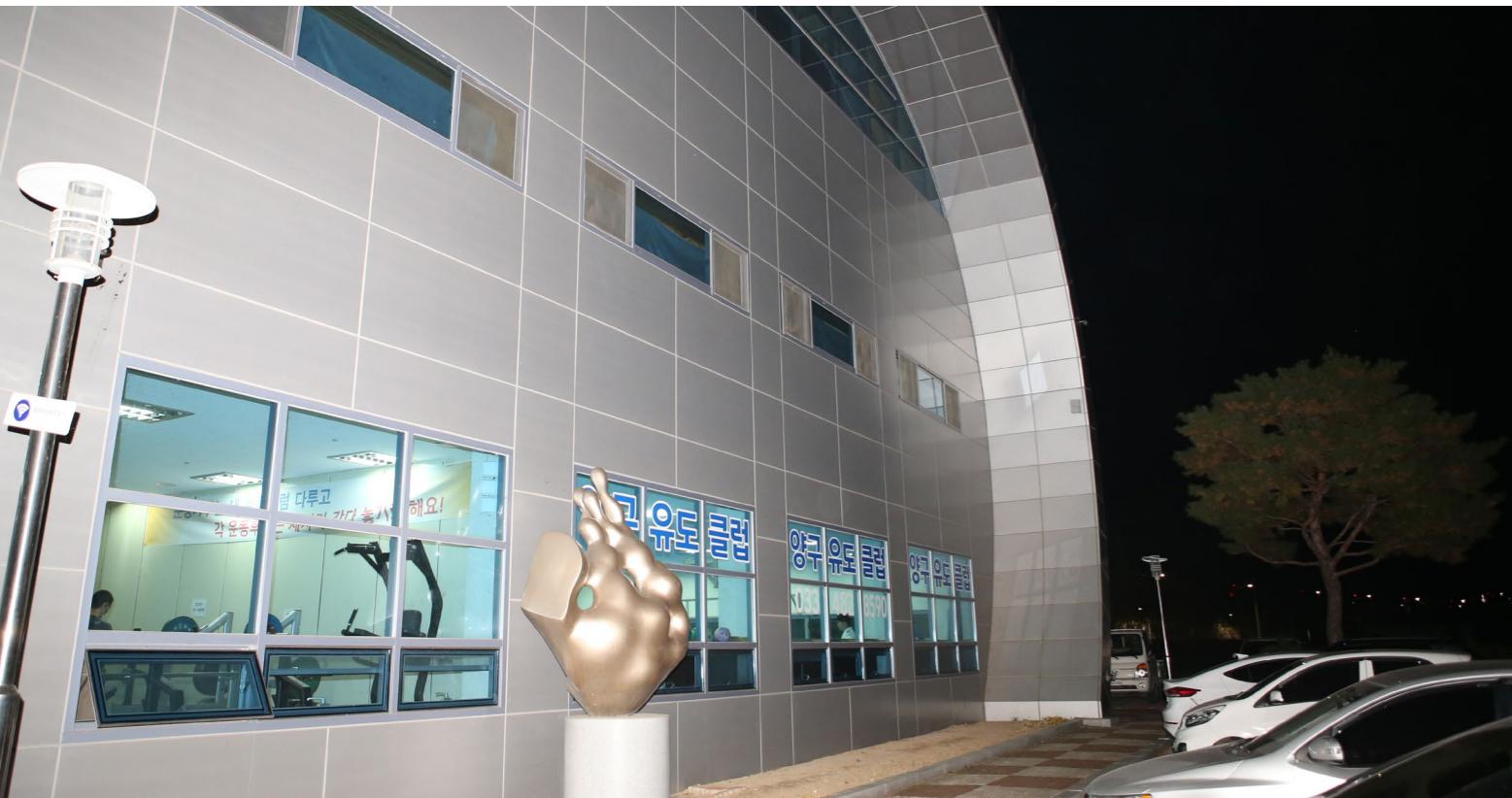
▣ 연예지가 아닌 <柔道>지와 인터뷰를 하는 게 어색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A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유도 이야기를 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밝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한 마디 남기며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A 둘째 아이가 농구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한 마디 남기고 싶어요. 운동을 하면서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을 보여주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

‘국토대중앙’ 양구에 국내 최초 유도 스포츠클럽이 생겼다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 4월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공모에서 2020년도 대한체육회 학교연계형 유도 부문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다. 유도 종목에서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구는 유도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사랑하는 도시 중 한 곳이다. 유도 사랑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양구 유도스포츠클럽에 다녀왔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도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다.

인구 2만 양구에 유도 클럽이 생겼어요

양구군은 20여 년에 거쳐 각종 스포츠 대회 및 많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전지훈련지로 손꼽히는 동네다. 올해도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많은 대회와 많은 팀들의 전지훈련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만큼 스포츠와 인연이 있는 도시다. 특히 양구군에서는 유도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10월 22일에는 2020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가 열렸다. 코로나19만 없었

다면 2020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 중·고교 유도대회, 2020 하계 전국 중·고교 유도 연맹전 겸 국제 유·청소년대회 파견 선발전 등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 대회들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취소되었다. 양구군은 이번에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2020년 전반기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고를 낸 것이다. 강원도유도회 회장이자 양구유도스포츠클럽 박승용 대표이사는 지원 계기에 대해 “학교 유도부가 잘 진행되면 좋은데, 학교

에서 운동부 만드는 것을 꺼리는 추세다. 그러던 중에 마침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번 확대를 위해,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운동부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 클럽에서 운동선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바로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클럽으로 승인받기까지 조건도 까다로웠다. 무엇보다 학교체육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 최종

심사까지도 무려 5차에 걸쳐 심사가 이뤄졌다. 1차 평가(필수요건확인), 2차(서면, 발표), 3차(현장실사), 4차(순위 평가), 최종(대한체육회) 심사를 거쳤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선정된 단체는 유·청소년 회원비율을 50% 이상 유지 및 전체 회원 목표 수를 지켜야 한다. 1년 후 회원 50명, 2년 후 70명, 3년 후 90명, 4년 후 120명, 5년 후 150명을 유지하여야 지속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박승용 대표이사는 양구군 조인묵 군수와 함께 끝까지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며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최종 선정됐다. 5년간 최대 4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용 대표이사는 선정되는 데까지 각 학교와 조인묵 군수의 도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구 지역 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클럽 선정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양구군 자체에서도 도움을 줬고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구 지역 유도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듭니다.”

박승용 대표이사는 양구 토박이다. 양구초, 양구중, 양구종합고까지 초중고를 모두 양구에서 나왔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5대 양구군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6대 양구군의회 의원을 지냈다. 양구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이번 사업 준비도 큰 문제가 없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양구 관계 기관과 친밀 관계를 유지 해왔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양구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도와줬습니다. 사실 이번 클럽 선정은 저 혼자만이 한 게 아닙니다. 양구군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목 잡았지만 다시 일어났다

운동은 양구국민체육센터 1층 유도장에서 이뤄진다. 지정된 예산 안에는 사무국장과 코치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초대 사무국장은 강원도유도회 김남준 전무 이사가 맡았다. 초대 코치는 성경미, 김유화 두 여자 코치다. 이 외에도 김광룡 양구군체육회 소속 지도자와 심우진 비봉초 유도부 코치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원래는 수업 타임도 많았다. 오전 10시~12시 타임을 시작으로 3시 20분~4시 20분(초등부·생활체육), 4시 30분~6시(초·중 선수반), 6시 10분~7시 10분(중·고·생활체육), 7시 30분~9시(제한없음) 등 다섯 타임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금은 4시 30분에서 6시(선수반), 7시에서 8시 30분. 두 타임만 수업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많은 유도관들이 문을 열지 못했다. 양구국민체육센터 역시 마





▣ 양구 유도스포츠클럽의 자랑거리라면.

A 자랑거리는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 자랑거리는 이제 만들어야 한다. 일단 지원을 받는 게 5년이다. 5년 이후에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투자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사소한 일이지만 아직 운행 버스가 없다. 각자 알아서 오는 편이다. 그런데 조만간 운행 버스도 생길 예정이다. 우리가 유도스포츠클럽이 많이 생기고, 활성화되는데 좋은 모델이 되고 싶다.

▣ 양구유도스포츠클럽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나.

A 경기력 향상을 통해 우수 선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와 이야기해 방과후에 유도 수업을 실시했으면한다고 이야기했다. 양구군 유도 도시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 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들을 하나로 요약해 말하고 싶다. 좋은 결실을 맺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겠다. 모두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찬가지다. 지자체 건물인 만큼 양구군에서 따로 지침을 내릴 때까지 이곳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유도관을 개방한 이후에는 접촉을 최소하기 위해 수업 타임을 줄였다. 성경미 코치는 “오전반도 개설을 준비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쉽사리 수업 타임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이사 역시 “우리는 양구국민체육센터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곳은 문을 닫았죠. 한

한 만남을 가지며 단합을 키웠다. 센터 옆에 있는 풋살장에서 풋살도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자 곧바로 관원들에게 개방 소식을 전했다. 관원들은 환호했다. “12일 바로 체육관을 개방했습니다. 물론 문을 닫는 동안 몇 명의 관원이 나간 건 아쉬운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버티고 버텨 다시 유도관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았을 당시 30여 명의 관원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삼삼오오 모였다. 학생들은 물론이다. 6세 장현서 양부터 시작해 59세 이생윤 씨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유도 이야기를 하며 유도를 즐겼다. 유도 매트 위에서 세대 차이는 느껴볼 수 없었다.



최초라는 자부심

“한국 유도 발전에 기틀 마련할게요!”

양구 유도스포츠클럽은 유도만을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유도 스포츠클럽이다. ‘최초’라는 단어는 박승용 대표이사에게 자부심을 주면서도 한편으로 한국 유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주기도 한다.

박승용 대표이사는 “유도 종목에서 양구군이 처음 채택됐다. 우리가 잘 되면 다른 지역에도 전파될 수 있다. 우리나라 유도가 발전하는 기초와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처음이기에 해야 할 것도 많다. 위에서 언급했듯 유·청소년 회원 비율을 50% 이상 유지 및 전체 회원 목표수를 유지해야 지원금과 클럽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5년 이 지나도 ‘양구유도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을 계속 달 수 있다.

“많은 예산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이 클럽이 용두사미(龍頭蛇尾, 처음은 좋지만 끝이 좋지 못하다는 사자성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클럽이 한국 유도에 자랑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 바로 유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기서 국가대표 선수가 나왔으면 한다고 웃었다. 축구, 농구 등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나 리틀야구에서 야구를 접한 학생들이 거기서 흥미를 느끼, 전문 운동부로 진학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박 대표이사 역시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꿈이다.

“특기 적성식으로 유도를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선수반도 계속해서 육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국가대표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결실 맺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유도스포츠클럽 파이팅!”

BONUS

‘국토정중앙 양구’

인구수에도 활기 띠길

양구군은 유도 대회와 전지훈련 외에도 스포츠 마케팅으로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얻는다. 특히 2019년 제5회 스포츠마케팅 어워드 2019(sport marketing awards 2019)에서 자치단체부문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구군은 종목별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해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선수들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스포츠를 통해 ‘국토정중앙 양구’라는 지역 브랜드와 특산물을 홍보한다. 하지만 찾는 이들은 많지만 거주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양구군은 최근에 인구가 많이 줄었다. 현재 2만 1천 명의 인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 내에서는 ‘2030년 인구 3만 1천 명 회복을 목표로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양구군은 양구소방서, 양구경찰서, 양구교육지원청 등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유도를 비롯한 스포츠를 통해 양구군에 인구가 늘어나고, 양구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박승용 대표이사의 소망이다.



해비급 유망주 용인대 박샛별

“태극마크 한 번 달아봐야죠”



박샛별은 대구체육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9년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78kg이상급, 무제한급 2연패를 달성한 선수다. 여자 유도의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박샛별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후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유망 주로 떠오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여자유도 해비급 유도 유망주 박샛별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유도 명문 용인대 신입생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 올해 용인대에 입학했어요. 대학생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A 유도를 열심히 한 보람을 느꼈어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제가 평소 가고 싶었던 용인대에 입학하게 되어 좋습니다.

▣ 듣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 진행이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A 작년 전국체전을 끝으로 거의 1년 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감각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집 근처 유도관에서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감각을 유지했어요. 학교에서 훈련할 때는 근력 운동을 했고요. 지금은 코로나19가 1단계로 내려가서 다시 학교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 박샛별 선수는 어쩌다 유도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A 어렸을 때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유도를 하던 친척 분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하게 됐죠. 체격도 있는 편이였고. 당시 유도를 가르쳐 주셨던 이은하 코치님이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게 됐어요.

▣ 그렇게 유도를 시작한 소녀가 2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기분이 어땠나요.

A 그 순간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1등을 계속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던 감정이 커졌던 것 같아요.

▣ 샛별 선수의 주특기가 허리후리기라고 들었어요. 그 기술 설명을 부탁드려요.

A 상대의 깃과 소매를 잡고 상대를 몸에 붙여서 다리로 후리는 기술입니다.

▣ 역대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허리



후리기가 주특기이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 허리후리기가 주특기가 된 이유가 있나요.

A 처음에는 후리기라기보다 감아치기에 가까운 기술을 사용했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체격이 크고 신체조건이 좋으니깐 몸을 날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 있었어요. 허리후리기 공부를 많이 했죠.

‘할땐하고, 쉴 때 쉬자’

박샛별의 좌우명

▣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장점은 운동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쉴 때 누구보다 열심히 쉬는 겁니다. 제 좌우명이에요. 운동선수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요.

A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어요.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혼자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힐링이 되더라고요. 무작정 여행 가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 자신이 생각하기에 좀 더 노력해야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A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 선배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비급이다

보니깐 기술 연마가 필요해요.

▣ 경기에 임할 때나 훈련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있나요?

A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쉴 때 열심히 쉬자’로 하겠습니다. 사실 좌우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훈련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저 생각인 것 같아요.

▣ 둘 모델이 있나요.

A 딱 한 분이 있진 않아요. 저보다 실력이 좋은 모든 분들을 보고 배우고 싶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멘탈적인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현재 삼고 있는 최종 목표가 있나요.

A 20살이라서 최종 목표는 너무 뻬른 이야 기인 것 같아요(웃음). 그래도 최종 목표이기도 하면서 현재의 목표가 있어요. 선수촌에 들어가서 태극마크를 달아봐야 하지 않을까 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훗날 박샛별 선수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나요.

A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나중에 인터뷰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직은 제가 성장하는 단계라서 후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좀 더 성장해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

유도와 함께라면 언제나 청춘

80세 유도 마니아 조대영

1942년생, 올해로 만 79세가 된 조대영의 인생은 불안함과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50살 늦깎이로 시작해 희수(喜壽)를 훌쩍 넘어선 지금의 나이에도 유도를 향한 조대영의 열정은 젊은 세대 못지 않다. 세계 최고령 대회 출전 선수를 목표로 남은 여생을 유도를 위해 온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그를 만나봤다.



51세에 유도를 시작했다. 느지막이 유도를 배우게 된 이유가 있나.

A 1990년 즈음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들이 한 여자 승객의 가방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로 앞에서 직접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고 큰 충격을 받아 동네 유도관에 등록했고 해를 거듭할 수록 흥미를 느끼고 끈질김을 발휘한 끝에 30년이 지난 지금 유도 공인 7단까지 승단 했으며 모든 일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

1년 만에 유단자가 됐다. 젊은 사람도 힘든 유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A 저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긴 했지만 격투기 종목 중 아마 유도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에겐 아직까지 몸과 몸이 부딪치는 격한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 밀고 당기는 원리만 잘 이해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노년층의 경우 준비운동을 20, 30대보다 더 칙칙하게 한다면 뼈에도 전혀 무리가 없다.

유도의 매력은 무엇인가.

A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는 유도의 덕 목이 있다. 자기방어를 위한 목적이지만 실전무술로써 인성교육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러한 유도정신이 깊게 와닿았기에 유도를 선택했던 것 같다. 지금도 저는 유도장에서 손자뻘 되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할 때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고 매사에 예를 갖춰 깍듯하게 대하곤 한다.

시니어 선수들은 적지 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존경스럽다. 그 비결이 있다면.

A 앞에서도 말했듯이 유도를 즐기는 데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보통의 사람들은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참고로 처음 유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안 아픈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딱 세 달만 버

텨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유도는 배우면 첫 한 달에서 석 달 사이가 가장 중요한 데, 이 시기를 잘 버틴다면 몸이 부드러워져 아프지도 않고 한결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도 대회 참가를 위해 일본에도 몇 차례 다녀왔다고.

A 종주국인 일본의 유도 문화를 경험하고 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일본 둇토리현에서 열린 노인유도대회에 100kg 체급으로 참가했다. 현지 일본인들도 일흔이 넘은 늙은이가 100kg 체급에 참가한 게 신기했는지 제게 많은 관심을 가져줬다. 한 순간에 인기스타가 된 것이다. 한번은 NHK 방송을 탄 적도 있다. 제가 일본 말을 잘 못해 도 한국말에 능통한 현지인을 데려와 통역을 해주는 등 현지 일본인들이 이해저래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과 일본의 시니어 생활체육유도 규모는 어떤 편인가.

A 일본은 종주국인 것을 감안해도 유도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노인 인구가 확실히 많다. 대회 인원도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인원 수는 물론 생활체육 기반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시니어 생활체육유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A 우선적으로 유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나 자체 체육회 등 집행부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도와 이해 관계가 없는 분들 중에서 능력있는 행정가와 기업가 등이 많이 나오면 스포츠로서의 유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 열정적이면서 유도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운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유도 뿐만 아니라 마라톤, 인라인 등 다른 종목들도 즐긴다고.

A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90년대 후반 IMF 여파로 제가 운영하던 의류 회사가 부도를 맞아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충격에 혈압 수치가 180까지 올라갔고 급기야 당뇨 증세까지 나타나는 등 건강 상태가 최악에 이르렀다. 그 때 유도와 함께 마라톤을 시작한 것이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하루 5시간 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체력을 키워나갔다. 덕분에 지금은 혈압이 정상 수치를 회복했고 당뇨 증세도 싹 없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음대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평소 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A 운동을 안하면 몸이 균질근질하다. 특

히 유도의 경우 하체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도장에 가지 못하는 요즘에는 인라인을 타면서 하체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 상체의 경우에도 2리터 짜리 페트병 10개를 둘러 메고 어깨 주위 근육 강화 운동을 틈틈이 하고 있다.

주말마다 운동을 나가실 것 같은데 가족들의 반대가 없었나. 반대는 아니더라도 일, 가정, 유도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다.

A 처음에는 부상 위험성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젠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제가 운동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생활체육 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뤄 보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A 사실 유도에 관해서라면 욕심이 많다. 최근 들어 전 세계 최고령 유도 선수가 돼 보자고 확실한 목표를 정했다. 내일 당장 죽을지 몰라도 죽는 그날까지 유도인이라는 생명감을 갖고 유도를 즐기고 싶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고 말투도 어눌해지고 있지만 힘 당는데까지 유도, 마라톤, 인라인 등 다양한 종목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 같은 아버지들, 그리고 아들 같은 젊은 동호인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A 경남 함안의 시골촌놈 중에서도 한참 촌놈이었던 나는 어린 시절 겁쟁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도로 인해 제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 남한테 떳떳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물론 그것이 폭력행 위나 객기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종목이다. 호신용으로 알 아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유도를 젊은 이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

OO
유도를 즐기는 데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보통의 사람들은
안 해서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은퇴 후 어떻게 지내나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로 변신

전 용인시청 유도선수 조성욱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로 변신한 전 유도선수가 있다. 바로 용인시청 유도팀에서 활약한 바 있는 조성욱이다. 조성욱은 대구 덕원중고·선문대·경찰청·용인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금곡중 코치, 체육영재 전담지도자를 맡은 바 있다. 유도복 대신 새로운 옷을 입고 제2의 인생에 나서는 그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이번에는 유도장이 아닌 서울 한강일대에서 조성욱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성욱’이라는 이름이 독자들에게 낯설 수 있는데, 인사 먼저 부탁합니다.

A 선문대 유도부를 거쳐 용인시청 실업 팀 유도선수였고, 지금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생활체육 유도를 즐기고 있는 조성욱입니다.

▣ 유도선수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어렸을 때부터 유도뿐만 아니라 운동 자체를 워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께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유도가 좋을 것 같아 저를 동네 유도장에 데려가셨어요. 처음 1~2달간은 적응이 힘들었으나 굉장히 재밌고 호신용으로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무렵, 선

수가 돼보자고 마음을 먹었고 대구 덕원중 유도부에 입문해 선수로서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그런데 선수로서 인상적인 커리어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A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유도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 사회적 명성을 얻어야만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꿈을 갖고는 있었지만, 제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해도 좋아하는 유도를 즐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행복했습니다.

▣ 운동만 하다 갑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A 아무래도 생소한 직종이다 보니 정보를

는 정말 감사한 존재입니다.

▣ 중학교 코치 생활을 하다가 서른일곱의 나이에 돌연 청원경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A 딸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데, 7살 되던 무렵 곧 있으면 학부모가 된다는 생각에 가장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압박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유도부 계약직 코치로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고 스스로 안정적인 직종을 찾던 와중에 우연히 청원경찰이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 운동만 하다 갑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A 아무래도 생소한 직종이다 보니 정보를

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낯설기도 했고요. 사실상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웃음).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모르는 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고, 인터넷카페 같은데 들어가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렇게 3년 가까이 준비 과정을 거쳤고 지난해 6월 마침내 시험 합격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A 서울시 산하에 30개 기관이 있는데 한강 사업본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전체 11개의 자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현재 잠실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관할구역을 순찰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또 한강공원을 둘며 불법낚시를 비롯해 그늘막 설치, 취사 등 여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청원경찰이라는 직업이 본인의 적성에는 맞나요.

A 정말 즐겁습니다. 원래 활동적인 성격이라 한강과 같이 넓은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또한 급여나 복지 측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를 거듭할수록 청원경찰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유도 선수들도 최근 들어 이쪽으로 은퇴 후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험자로서 학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팁이 있을까요.

A 가면 갈수록 청원경찰 시험 응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해 20명가량 선발하는데 올해는 4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했습니다. 경찰(순경) 시험과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시험도 유도 단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줍니다. 단수별로 가산점이 다르게 주어지는데 유도 공인 7단인 저 같은 경우에는 10

▣ 청원경찰의 급여와 복지는 어떤가요.

A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의 급여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인 저는 국가직순경에 준해 급여를 받고 있고,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복지도 공무원을 기준으로 혜택받고 있습니다.

▣ 서울시 소속으로 유도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유도 동호회가 창설됐습니다. 시에서도 넉넉한 지원금은 아니지만 생활체육 유도 발전을 위해 보태라고 지원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도장에서 꾸준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의 열정도 대단하더라고요. 동호인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기술을 전수해 주는 한편,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친목을 다지는 등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함께 운동하는 회원들과 실력을 더 갚고닦아 전국 동호인 유도 대회에 출전해보자고 목표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최근에는 도장을 사용할 수 없는 탓에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동료들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를 거듭할수록 청원경찰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유도 선수들도 최근 들어 이쪽으로 은퇴 후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험자로서 학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팁이 있을까요.

A 가면 갈수록 청원경찰 시험 응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해 20명가량 선발하는데 올해는 4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했습니다. 경찰(순경) 시험과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시험도 유도 단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줍니다. 단수별로 가산점이 다르게 주어지는데 유도 공인 7단인 저 같은 경우에는 10

JOB

공공기관 청원경찰은?

공공기관 청원경찰은 국가 주요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시설에 배치되어 해당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경찰청 소속의 일반적인 경찰공무원만큼의 그 직무범위나 영역이 넓지는 않다. 청원경찰은 경찰(순경)의 급여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점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통 유도선수들은 현역 생활을 하면서 단증 취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단증 가산점을 받지 못해 시험에서 떨어지는 후배들도 몇몇 봤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필히 유도 단증을 따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청원경찰 시험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제공하는 혜택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사능력시험·한국어능력시험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성욱에게 청원경찰과 유도란?

A 삶의 새로운 활력소랄까요. 청원경찰로 직종을 바꾼 이후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났습니다. 또 유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유도 활동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도를 즐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비록 유도선수로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유도 노하우를 동호인들에게 더 많이 베풀면서 봉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❸



NEWS IN JUDO

유도 뉴스



2020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 개최

2020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가 지난 10월 22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됐다.

9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이번 대회는 2020 경찰청 유도 경력 경쟁채용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남녀 10체급에서 3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번 대회 우승자들은 최종 면접시험을 거쳐 실기시험 75%, 면접 시험 25%를 반영하여 최종 4명이 경찰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2020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 1위 입상자

남자 (6명)	-60kg	박성영(불루나눔필록스)
	-73kg	함영진(수원시청)
	-81kg	김민규(대구광역시청)
	-90kg	한경진(수원시청)
	-100kg	조석현(대구광역시청)
	+100kg	김우진(용인대양천유도체육관)
여자 (4명)	-36kg	김이현(포항시청)
	-40kg	김새리(충북도청)
	-52kg	명지혜(부산복구청)
	+52kg	최은솔(안산시청)

2020년도 제3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20년도 제3차 정기승단심사가 8월 26일에 실시됐다. 이번 승단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심의위원회 소집이 불가해 서면 동의서의결로 실시됐으며, 총 3,532명이 승단했다.

승단인원-3차

7단	5명	4단	117명	2단	795명	소년초단	639명
6단	5명	3단	288명	소년2단	246명		
5단	11명	소년3단	23명	초단	1,403명		

NEWS IN JUDO

유도 뉴스 & 유도인 동정

2020년도 꿈나무선수 선발

본회는 10월 26일 올림피테니스 경기장 회의실에서 2020년도 꿈나무선수 선발을 위한 회의를 열고 남자 21명, 여자 17명의 꿈나무선수를 선발했다. 금년도 꿈나무선수 선발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 제주컵 유도대회 성적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통계를 낸 T점수를 근거로 선발했으며 부상 및 개인사정으로 꿈나무선수 사업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선수를 선발하기로 했다.

꿈나무선수 명단

남자 (21명)	-36kg	조현우(영천동부초), 김도형(영천동부초), 김민식(칠원초)
	-42kg	백승재(송중초), 전민형(신월원초), 엄정현(탑동초)
	-54kg	전민성(신월원초), 고은찬(동남초), 김용빈(가ップ초)
	-60kg	김상규(대구남산초), 박준경(신정초), 이지훈(양학초)
	-66kg	김우진(봉황초), 최종원(비봉초), 김동우(영양초)
	+66kg	심재윤(대남초), 윤지훈(인천삼산초), 김경민(인천서흥초)
여자 (17명)	-36kg	박예지(순천신흥초), 이시현(비봉초), 공다인(대전천동초)
	-40kg	박지민(대남초), 정은채(논산내동초)
	-44kg	문지현(동남초), 이시진(신월원초), 이시은(내성초), 박지우(김해활천초)
	-48kg	이채경(응암초), 한율겸(신월원초), 이수연(인천서흥초)
	-52kg	강나은(서귀포초), 박혜원(금호초)
	+52kg	차은서(인천삼산초), 박정은(김해활천초), 정단비(금호초)

상임심판 전문화 교육 실시



2020년도 제1차 상임심판 전문화교육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용인코업호텔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는 본회 소속 상임심판 9명이 참가했으며, 스포츠 인권 교육, 심판의 조건 및 윤리, 심판규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남자대표팀 의무트레이너 선임

본회는 2020 도쿄올림픽 대비 신규전략종목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남자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9월 11일에 개최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조정호(29세)씨를 의무트레이너로 선임했다.

조정호 의무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스포츠마사지, 스포츠테이핑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2018년부터 의무트레이너 및 물리치료사로 활동해왔다.

유도인 경조사 (2020년 7월~10월)

7월 11일	정수범 본회 부회장 부친상
8월 1일	전 국가대표 최선호 선수 부친상
9월 3일	강동영 본회 사무처장 빙부상

2020년 제3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0년 8월 26일)

7단		25958	정 구 용	26009	권 수 길	42431	김 강 래	42482	박 기 흥	42533	황 민 혁	42584	김 성 태	42635	강 상 우	42686	정 승 현	139655	이 건 희	139706	김 민 아	139757	손 명 관
11962	김 락 기	25959	최 지 웅	26010	서 소 연	42432	차 운 산	42483	노 윤 지	42534	권 오 찬	42585	정 지 윤	42636	김 대 영	42687	유 위 천	139656	임 흥 재	139707	백 승 민	139758	박 정 육
11963	김 경 현	25960	배 성 환	26011	이 종 호	42433	김 지 훈	42484	김 용 국	42535	권 유 정	42586	김 영 훈	42637	금 경 훈	42688	이 우 석	139657	홍 지 민	139708	윤 해 수	139759	정 건 호
11964	이 정 국	25961	김 용 수	26012	김 범 곤	42434	박 현 우	42485	김 용 대	42536	허 규 현	42587	정 해 민	42638	정 주 연	42689	이 의 준	139658	김 예 진	139709	이 아 영	139760	박 시 은
11965	윤 종 대	25962	하 성 일	26013	이 윤 환	42435	김 종 현	42486	김 선 주	42537	박 도 준	42588	김 영 진	42639	진 세 운	42690	문 성 범	139659	권 석 재	139710	이 한 솔	139761	김 지 흥
11966	임 병 기	25963	강 봉 수	26014	이 동 윤	42436	임 보 미	42487	강 민 석	42538	정 경 일	42589	윤 선 구	42640	김 명 준	42691	김 화 수	139660	정 윤 선	139711	김 정 원	139762	송 보 승
6단		25964	김 흥 선	26015	이 주 용	42437	최 수 영	42488	이 승 섭	42539	이 창 현	42590	김 민 규	42641	조 은 미	42692	전 승 우	139661	심 지 연	139712	홍 준 택	139763	민 경 훈
13094	함 우 형	25965	윤 영 준	26016	정 진 형	42438	김 세 준	42489	이 유 일	42540	양 우 정	42591	안 혜 빙	42642	신 진 평	42693	유 수 희	139662	김 태 경	139713	한 도 진	139764	박 성 영
13095	주 성 호	25966	김 태 우	26017	권 진 택	42439	김 범 철	42490	김 주 하	42541	이 도 현	42592	김 부 식	42643	윤 석 수	42694	양 찬 육	139663	이 성 주	139714	최 예 원	139765	홍 의 표
13096	백 상 현	25967	강 동 우	26018	김 건	42440	김 성 은	42491	박 수 빙	42542	김 용 원	42593	박 목 원	42644	이 경 호	42695	조 해 강	139664	이 장 운	139715	김 동 희	139766	장 규 호
13097	정 필 종	25968	조 준	26019	조 지 만	42441	강 태 환	42492	박 현 진	42543	장 희 준	42594	김 정 현	42645	김 민 수	42696	이 태 훈	139665	백 승 조	139716	전 관 우	139767	권 정 운
13098	김 태 흥	25969	이 우 주	26020	조 성 민	42442	박 천 호	42493	박 영 채	42544	이 성 구	42595	송 선 호	42646	김 정 수	42697	김 주 영	139666	장 윤 선	139717	정 민 서	139768	하 준 수
5단		25970	이 정 호	26021	박 은 영	42443	김 윤 식	42494	문 하 늘	42545	류 도 완	42596	강 현 원	42647	서 민 현	42698	정 민 우	139667	백 승 헌	139718	임 원 빙	139769	오 현 송
15323	박 민 영	25971	정 인 선	26022	장 지 수	42444	백 윤 호	42495	윤 태 양	42546	연 성 현	42597	전 준 구	42648	김 지 원	42699	유 건 우	139668	이 성 윤	139719	김 환 식	139770	김 자 운
15324	정 다 운	25972	김 근 호	26023	한 윤 섭	42445	한 영 기	42496	윤 하 늘	42547	이 왕 준	42598	권 혁	42649	손 동 운	42700	윤 주 희	139669	김 강 훈	139720	홍 민 육	139771	정 재 근
15325	윤 영 달	25973	임 호 준	26024	이 호 균	42446	김 세 진	42497	한 상 휘	42548	이 재 유	42599	정 옥 기	42650	정 석 화	42701	서 재 현	139670	김 영 운	139721	김 희 재	139772	한 윤 택
15326	서 하 나	25974	이 진 용	26025	박 성 호	42447	권 예 준	42498	송 승 혁	42549	윤 상 남	42600	박 상 원	42651	김 우 태	42702	김 누 리	139671	성 범 준	139722	최 태 호	139773	김 동 규
15327	조 진 영	25975	민 은 지	26026	이 규 현	42448	안 영 빙	42499	김 도 경	42550	안 치 흥	42601	김 태 수	42652	이 채 훈	42703	박 기 랑	139672	조 현 기	139723	김 도 현	139774	이 유 진
15328	최 승 완	25976	박 상 훈	26027	손 경 탁	42449	황 인 택	42500	손 건 우	42551	김 동 한	42602	박 대 남	42653	심 민 석	42704	김 경 남	139673	김 정 모	139724	송 용 준	139775	남 서 영
15329	박 종 원	25977	곽 봉 섭	26028	장 동 규	42450	김 태 경	42501	조 미 연	42552	김 명 석	42603	손 용 기	42654	오 협 찬	42705	서 혜 민	139674	김 재 민	139725	이 두 희	139776	안 도 연
15330	김 준 기	25978	김 성 규	26029	최 성 현	42451	김 해 지	42502	정 태 양	42553	도 건 호	42604	정 윤 수	42655	조 정 현	42706	김 유 은	139675	임 지 윤	139726	김 병 하	139777	유 가 은
15331	성 지 은	25979	권 정 훈	26030	이 준 혁	42452	장 동 선	42503	박 강 희	42554	임 병 록	42605	김 성 우	42656	박 희 응	42707	김 아 름	139676	권 창 성	139727	박 현 지	139778	김 제 흥
15332	배 수 인	25980	이 대 형	26031	옥 윤 승	42453	김 일 권	42504	정 석 준	42555	강 동 균	42606	나 명 호	42657	전 성 일	42708	최 치 원	139677	최 진 수	139728	양 재 원	139779	박 병 준
15333	김 영 동	25981	정 재 훈	26032	오 광 식	42454	성 현 지	42505	정 혁 용	42556	김 재 영	42607	천 재 웅	42658	홍 준 호	42709	김 친 이	139678	남 현 수	139729	김 호 진	139780	김 혁
4단		25982	신 용 주	26033	고 은 민	42455	박 경 호	42506	박 세 민	42557	배 규 열	42608	김 동 휘	42659	이 병 철	42710	고 범 수	139679	최 민 주	139730	남 도 규	139781	박 성 민
25983	김 상 훈	26034	이 태 훈	42456	안 태 규	42507	안 정 현	42558	최 명 훈	42609	하 정 빈	42660	오 성 용	42661	김 지 정	42711	김 사 윤	139680	임 승 협	139731	장 태 석	139782	배 민 지
25984	유 경 호	26035	정 겨 운	42457	이 승 민	42508	심 현 빙	42559	조 준 우	42610	김 지 정	42662	임 철 민	42712	이 혁	139681	김 모 세	139732	차 은 아	139783	윤 민 육		
3단		25985	전 형 준	26036	김 진 우	42458	이 정 현	42509	이 민 류	42611	신 지 영	42663	정 세 훈	42713	2단	139682	최 유 권	139733	박 용 원	139784	천 소 원		
25986	이 규 하	26037	박 수 진	42459	김 경 률	42510	이 성 우	42612	조 영 학	42664	정 세 훈	139683	엄 덕 상	139734	김 동 우	139785	윤 정 빙	139786	이 진 기				
25987	최 호 철	26038	송 영 태	42460	박 용 균	42511	김 태 현	42613	김 동 권	42664	양 원 일	139684	주 재 현	139735	조 영 진	139787	이 진 기	139788	류 동 우				
25988	황 수 아	26039	정 영 도	42461	이 푸 름	42512	김 윤 동	42614	이 예 원	42665	박 재 현	139685	최 보 람	139736	박 종 우	139789	황 보성 철	139790	최 상 현				
25989	정 현 호	26040	이 재 원	42462	정 수 빙	42513	이 용 규	42615	강 정 규	42666	임 보 영	139686	이 무 재	139737	한 지 훈	139791	이 동 수</						

2020년 제3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0년 8월 26일)

139808	김 현 수	139859	정 일 두	139910	김 민 수	139961	김 선 호	140012	천 은 총	140063	박 승 민	140114	전 다 은	140165	김 도 영	140216	김 다 솔	140267	김 태 용	140318	김 장 미	140369	이 상 협
139809	이 창 수	139860	박 찬 솔	139911	김 수 훈	139962	양 성 주	140013	이 건 우	140064	배 진 경	140115	이 정 훈	140166	황 율 민	140217	이 승 재	140268	서 재 원	140319	김 재 훈	140370	김 준 영
139810	백 소 희	139861	양 석 희	139912	박 봉 수	139963	이 수 현	140014	설 창 수	140065	설 윤 지	140116	박 준 희	140167	김 은 서	140218	송 나 연	140269	유 재 민	140320	우 태 산	140371	윤 재 우
139811	박 근 우	139862	양 석 우	139913	이 승 빙	139964	강 승 준	140015	우 동 양	140066	허 지 웅	140117	이 지 연	140168	조 예 승	140219	김 우 성	140270	정 수 현	140321	이 정 우	140372	최 소 연
139812	이 준 원	139863	최 현 우	139914	유 빙	139965	이 기 영	140016	최 유 진	140067	조 예 빙	140118	최 용 민	140169	김 수 빙	140220	김 도 현	140271	홍 민 혁	140322	최 선 웅	140373	이 정 현
139813	이 예 린	139864	임 성 열	139915	최 세 웅	139966	김 한 중	140017	권 종 현	140068	김 소 연	140119	장 동 진	140170	강 병 재	140221	하 유 진	140272	김 수 지	140323	최 희 락	140374	서 용 훈
139814	최 준 혁	139865	곽 서 진	139916	김 건 우	139967	김 태 오	140018	김 진 일	140069	김 민 성	140120	김 주 환	140171	명 지 호	140222	정 태 민	140273	김 효 준	140324	김 유 정	140375	한 의 준
139815	황 선 우	139866	조 현 웅	139917	김 인 서	139968	강 등 희	140019	김 동 현	140070	우 성 옥	140121	석 요 한	140172	강 요 섭	140223	이 현 우	140274	신 승 호	140325	신 승 훈	140376	김 영 인
139816	강 석 현	139867	김 지 예	139918	진 대 환	139969	김 대 한	140020	오 기 뽐	140071	이 빙	140122	최 지 운	140173	이 다 예	140224	함 석 진	140275	강 동 군	140326	윤 준	140377	구 진 완
139817	김 승 규	139868	황 시 연	139919	조 원 진	139970	신 이 화	140021	박 준 용	140072	이 승 환	140123	오 상 윤	140174	이 찬 빙	140225	장 유 빙	140276	권 혁 선	140327	권 두 영	140378	이 아 영
139818	오 자 혜	139869	김 관 호	139920	양 희 원	139971	김 도 훈	140022	신 진 섭	140073	강 정 우	140124	정 진 우	140175	박 광 민	140226	윤 석 일	140277	심 의 보	140328	김 민 서	140379	김 대 성
139819	정 우 민	139870	차 민 상	139921	황 서 영	139972	김 영 관	140023	김 선 화	140074	김 성 유	140125	김 동 규	140176	김 선 준	140227	공 민 석	140278	이 종 철	140329	전 현 지	140380	박 선 영
139820	이 승 준	139871	박 창 육	139922	임 승 일	139973	이 옥 영	140024	류 가 연	140075	윤 종 웅	140126	송 진 현	140177	이 유 경	140228	민 유 정	140279	황 병 훈	140330	최 서 진	140381	김 채 은
139821	이 채 연	139872	박 지 흥	139923	최 승 혁	139974	김 지 언	140025	우 병 우	140076	김 진 석	140127	박 창 수	140178	박 상 준	140229	곽 명 수	140280	박 동 수	140331	강 철 민	140382	민 도 아
139822	김 지 윤	139873	장 진 석	139924	서 준	139975	박 진 희	140026	김 창 현	140077	서 승 원	140128	최 민 규	140179	김 지 태	140230	신 언 호	140281	강 지 재	140332	손 현	140383	이 민 규
139823	주 예 진	139874	정 원 규	139925	박 중 호	139976	신 창 훈	140027	김 진 현	140078	박 경 진	140129	박 병 관	140180	강 가 현	140231	최 창 현	140282	최 다 연	140333	김 인 엽	140384	황 선 제
139824	우 상 민	139875	금 덕 윤	139926	명 하 윤	139977	조 재 영	140028	이 현 률	140079	이 지 연	140130	김 승 유	140181	김 다 빙	140232	김 호 성	140283	문 현 지	140334	김 주 현	140385	이 명 은
139825	엄 다 빙	139876	이 무 환	139927	송 영 승	139978	장 수 빙	140029	오 동 훈	140080	김 범 수	140131	이 은 찬	140182	김 다 현	140233	채 지 영	140284	연 유 리	140335	박 지 환	140386	임 가 령
139826	남 진 주	139877	이 기 현	139928	허 준 열	139979	공 정 연	140030	손 예 빙	140081	조 명 식	140132	강 동 훈	140183	김 의 현	140234	김 서 인	140285	이 은 아	140336	서 재 혁	140387	안 현 준
139827	이 수 영	139878	조 현 우	139929	김 양 열	139980	최 보 혜	140031	정 나 인	140082	오 시 현	140133	신 태 하	140184	박 수 현	140235	민 승 훈	140286	이 예 진	140337	김 주 혁	140388	김 세 희
139828	이 진 현	139879	이 승 필	139930	정 직 한	139981	권 미 현	140032	손 동 민	140083	이 준 원	140134	정 다 운	140185	박 찬 일	140236	성 낙 권	140287	이 승 빙	140338	김 수 영	140389	김 희 찬
139829	신 경 수	139880	김 이 현	139931	신 창 호	139982	장 서 영	140033	이 수 아	140084	김 성 진	140135	김 지 훈	140186	변 예 슬	140237	성 환 희	140288	정 은 서	140339	김 다 희	140390	조 영 악
139830	김 시 은	139881	강 채 윤	139932	이 수 빙	139983	박 서 영	140034	김 보 성	140085	장 선 규	140136	김 민 준	140187	염 지 민	140238	강 정 구	140289	전 유 린	140340	김 성 민	140391	박 흥 기
139831	남 호 신	139882	정 진 실	139933	황 윤 흥	139984	이 건 창	140035	진 시 연	140086	이 성 원	140137	강 승 협	140188	오 윤 희	140239	최 보 훈	140290	장 서 연	140341	우 수 민	140392	최 기 훈
139832	권 선 이	139883	엄 미 주	139934	김 재 석	139985	이 경 수	140036	이 재 현	140087	안 종 훈	140138	권 민 혁	140189	윤 건 우	140240	이 요 한	140291	길 양 호	140342	차 재 민	140393	김 정 호
139833	공 소 원	139884	이 건 우	139935	김 현 우	139986	박 진 우	140037	김 보 민	140088	박 진 영	140139	박 재 민	140190	이 민 영	140241	조 성 우	140292	조 봉 희	140343	차 재 현	140394	김 준 혁
139834	강 수 아	139885	이 대 경	139936	허 윤 석	139987	임 태 성	140038	노 윤 호	140089	이 춘 봉	140140	고 승 범	140191	이 하 영	140242	천 종 혁	140293	장 경 민	140344	김 재 원	140395	오 승 협
139835	김 아 름	139886	류 성 준	139937	위 다 현	139988	임 훈 성	140039	장 원 순	140090	박 태 환	140141	박 해 완	140192	조 예 린	140243	박 상 민	140294	서 지 웅	140345	한 순 흥	140396	이 준 혁
139836	정 하 늘	139887	김 대 희	139938	박은누리	139989	윤 종 웅	140040	정 원 흥	140091	정 대 영	140142	김 동 현	140193	조 현 아	140244	김 재 식	140295	김 민 준	140346	남 지 현	140397	정 명 원
139837	고 승 표	139888	정 경 원	139939	정 순 우	139990	김 형 육	140041	김 시 우	140092	안 찬 규	140143	이 준 우	140194	차 서 희	140245	정 범 호	140296	김 부 원	140347	남 철 우	140398	최 지 환

2020년 제3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0년 8월 26일)

140420	고 영 준	6559	설 현빈	6610	황 서후	6661	나 영훈	6712	남 기준	6763	임 찬웅
140421	박 효준	6560	박 은경	6611	황 지후	6662	배 건민	6713	정 준봉	6764	김 정빈
140422	박 진우	6561	최 우진	6612	정 의천	6663	임 선빈	6714	권 한빈	6765	조 수혁
140423	윤 세군	6562	서 준원	6613	정 해일	6664	전 승준	6715	박 태원	6766	김 기현
140424	전 승범	6563	김 연주	6614	정 해율	6665	박 상혁	6716	송 우정	6767	이 태빈
소년 3단		6564	정 준서	6615	이 재희	6666	김 건호	6717	지 흥일	6768	이 가은
1062	한 동아	6565	김 도은	6616	윤 지훈	6667	송 민기	6718	김 수아	6769	강 현호
1063	이 현지	6566	오 정원	6617	김 채현	6668	허영진	6719	김 혁준	6770	김 률
1064	허정재	6567	배 신우	6618	김 서진	6669	홍정인	6720	신 송빈	6771	함지훈
1065	이 준원	6568	정 우현	6619	유은성	6670	강은우	6721	백유빈	6772	김 범준
1066	허지민	6569	신제민	6620	김기범	6671	박상명	6722	염용현	6773	이종원
1067	이 유상	6570	이유상	6621	정시혁	6672	박상원	6723	신재혁	6774	김지민
1068	김준수	6571	박혜성	6622	신현준	6673	양선모	6724	서원준	6775	유다훈
1069	박혜성	6572	진민성	6623	안수현	6674	이시진	6725	서규연	6776	김강민
1070	최재영	6573	왕재현	6624	조윤호	6675	한예주	6726	최민우	6777	박현성
1071	이 다한	6574	김은찬	6625	최은성	6676	한율겸	6727	김동훤	6778	김유성
1072	김태수	6575	김태수	6626	김미주	6677	김경동	6728	김도우	6779	김용하
1073	윤주승	6576	윤동규	6627	조윤신	6678	김종윤	6729	이원	6780	김승우
1074	김민지	6577	조필모	6628	서지윤	6679	전민형	6730	이종운	6781	문수빈
1075	안민재	6578	강태구	6629	김진천	6680	전민성	6731	서성만	6782	문지현
1076	손성빈	6579	김경빈	6630	김진문	6681	전민균	6732	오힘찬	6783	이지원
1077	이민후	6580	김효진	6631	주호준	6682	김세준	6733	유지호	6784	고민수
1078	임효준	6581	박지안	6632	이하준	6683	김세환	6734	이재율		
1079	한건우	6582	김나윤	6633	박건우	6684	김세훈	6735	전성민		
1080	서성민	6583	이인성	6634	황연진	6685	김주원	6736	황준서		
1081	손석희	6584	최수현	6635	권도훈	6686	유민식	6737	김서빈		
1082	정민규	6585	안호영	6636	이건	6687	임엘리야	6738	김나영		
1083	장재영	6586	박예나	6637	신하륜	6688	전건우	6739	이은민		
1084	최우빈	6587	박채운	6638	황제원	6689	윤산	6740	양선민		
소년 2단		6588	이경훈	6639	이태수	6690	서윤우	6741	최진혁		
1085	서우민	6589	이정안	6640	박준섭	6691	강민철	6742	박찬석		
1086	최보영	6590	류지혜	6641	김경훈	6692	이준	6743	송현우		
1087	이수호	6591	김정운	6642	백종우	6693	김은혁	6744	이채영		
1088	양루민	6592	김선후	6643	김유성	6694	김준영	6745	이준영		
1089	양지민	6593	이한율	6644	차우림	6695	안도현	6746	김준영		
1090	백승재	6594	이하람	6645	변정훈	6696	김건호	6747	이지훈		
1091	임도훈	6595	조승우	6646	양태우	6697	박민수	6748	김태란		
1092	김수연	6596	남승필	6647	양태양	6698	윤혜원	6749	권다은		
1093	정진혁	6597	전소현	6648	박주호	6699	김동욱	6750	장호진		
1094	윤태현	6598	손예림	6649	최시율	6700	오윤	6751	남지혁		
1095	조우성	6599	정수진	6650	이성혁	6701	이서율	6752	남지환		
1096	김다함	6600	김주한	6651	권능	6702	양현모	6753	한인경		
1097	정인권	6601	이성우	6652	권영	6703	윤준서	6754	송창현		
1098	이치윤	6602	이건왕	6653	이시울	6704	윤예린	6755	이지민		
1099	정예담	6603	김경민	6654	김주혁	6705	장민기	6756	임재성		
1100	이유준	6604	차영웅	6655	박성연	6706	서현준	6757	김민수		
1101	김우진	6605	문유빈	6656	우다윗	6707	김은채	6758	정해민		
1102	김우성	6606	한솔	6657	조동훈	6708	김대한	6759	배지환		
1103	김규찬	6607	나석원	6658	고은아	6709	한성준	6760	박유상		
1104	이건우	6608	김기영	6659	도유빈	6710	이병훈	6761	김종현		
1105	백동균	6609	조수인	6660	조수인	6711	김은조	6762	김강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 생활방역 ...> <... 지역적 유행 단계 ...> <... 전국적 유행 단계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이상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수도권 1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0명이상 - 2배 이상 지속 ④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세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형 본격화, 위험지역,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 > 지역적 유형 단계 > 전국적 유형 단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 관리 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 관리 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 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 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 집회·사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500명 이상 행사는 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 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 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종교활동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adidas
JUDO



ADIDAS JUDO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야와라 스포츠
031.455.0808

아디다스 컴뱃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포타운 4층



원큐에 돈이 되는 하나원큐 모바일대출
지금 하나원큐로
갈아타할 때

잔액은 모으고! 대출은 갈아타고! 하나를 알면 열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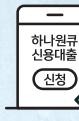
하나원큐
바로가기



STEP 1
하나 원큐
앱 실행



STEP 2
전체 메뉴 > 대출 > 대출상품
> 하나원큐신용대출 상품 확인



STEP 3
한도 조회 및
신청하기



STEP 4
대출한도 확인하고,
[갈아타기 금리 및 한도 조회] 클릭!

유도는 하나다! 하나는 유도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한도 기준으로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무부의 재산·신용정보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결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등 자세한 설명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결 2020-광고-2113호(2020.04.28) CC브랜드 200424-0129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